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동·가정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on
the Pragmatic Language Skills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서수민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혜원

이 논문을 아동·가정복지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서수민

서수민의 아동·가정복지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영주

심사위원

정민자

심사위원

신명선

심사위원

전효정

심사위원

박혜원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1년 8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8
1) 기질의 개념 및 특성	8
2) 기질의 관련변인	10
3)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12
2.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조화적합성	13
1) 기질조화적합성의 개념 및 특성	13
2) 기질조화적합성의 관련변인	15
3)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조화적합성	17
3.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	19
1) 화용언어능력의 개념 및 특성	19
2) 화용언어능력의 관련변인	23
3)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	26
III. 연구방법	28
1. 연구대상	28
2. 연구도구	30
3. 연구절차	34
4. 자료분석	35
IV. 연구결과	36
1.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차이	36
2.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	38
3.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 치는 영향	42

1)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담화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43
2)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44
3)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의사소통 의도에 미치는 영향	45
4)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47
5)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	48
V. 논의 및 결론	50
참고문헌	68
Abstract	82
부록 [부모용 설문지]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8
<표 2> 유아 기질 척도 하위요인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1
<표 3> 어머니 요구도 척도 하위요인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2
<표 4> 유아 화용언어능력 척도 하위요인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2
<표 5> 집단 간 기질 하위요인별 차이	36
<표 6> 집단 간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별 차이	36
<표 7> 집단 간 화용언어능력 하위요인별 차이	37
<표 8>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	39
<표 9>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	41
<표 10>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담화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43
<표 11>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44
<표 12>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의사소통 의도에 미치는 영향	46
<표 13>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47
<표 14>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	48

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기질과 기질조화적합성이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 1-1.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차이는 어떠한가?
- 1-2.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조화적합성 차이는 어떠한가?
- 1-3.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화용언어능력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은 어떠한가?

- 2-1.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은 어떠한가?
- 2-2.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1.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담화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2.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3.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의사소통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4.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5.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은 만 5세 언어발달지체유아 125명과 일반유아 125명이었다. 유아의 기질은 Rothbart(1981)의 유아용 기질 척도(CBQ-VSF, Putnam & Rothbart, 1981)로 측정하였다. 유아의 기질조화적합성은 CBQ-VSF 기질 문항과 어머니 요구도 문항을 짝지어, 두 점수의 차이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은 오소정 외(2012) 아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hildrens'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로 측정하

였다.

SPSS 25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 -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에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아보다 외향기질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외향조화적합성도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언어발달지체유아가 담화 관리능력,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모든 화용언어능력에서 일반유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집단별로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 기질과 화용언어능력 간의 상관분석 결과 주의통제기질과 담화 관리능력, 의사소통 의도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기질조화적합성과 화용언어능력 간의 상관분석결과 외향조화적합성과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능력 전체 간 정적 상관, 주의통제조화적합성과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일반유아에서는 기질과 화용언어능력 간의 상관분석 결과 주의통제기질과 담화 관리능력,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능력 전체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기질조화적합성과 화용언어능력 간의 상관분석결과 외향조화적합성과 의사소통 의도 간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주의통제조화적합성과 담화 관리능력 간에도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주의통제기질이 담화 관리능력에만 영향을 주었고, 외향조화적합성이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그리고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에서는 주의통제기질이 담화 관리능력,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및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통제조화적합성도 주의통제기질과 마찬가지로 화용언어능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및 변인 간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두 집단 간에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모두에서 주의통제기질이 화용언어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언어능력이 낮은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외향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일반유아에서는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집단에서 화용언어능력의 발달을 위해서 서로 다른 양육 특성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뜻하며, 기질조화적합성이론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가 연구 변인 간의 차이를 보이며 영향요인의 관계가 다름을 살펴보았다. 특히 집단별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언어발달지체유아의 다양한 개인차 및 특성을 고려한 양육특성과 중재방향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어능력에 따라 기질조화적합성의 영향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능력 집단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넓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언어발달지체유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의 구성요소에는 의미론, 구문론, 형태론, 음운론, 화용론이 있다. 그중 화용론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화용언어능력은 화자와 청자 간 질문과 대답, 요청과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는 능력,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Adams, 2002). 이러한 화용언어능력은 전반적인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두드러진다(김현희, 2018).

화용언어능력은 생득적인 것으로 아동의 발달단계 초기부터 출현한다. 정상적인 언어발달 과정에서는 낱말사용, 단어 산출, 실제 언어 사용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의사 표현과 동시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맘마 쥐’, ‘맘마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자신이 한 말의 의미나 음운 형식을 연습한 후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언어의 형식에 사용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즉 유아의 언어발달은 화용언어능력과 분리할 수 없으며, 언어의 사용은 언어 형식에 대한 지식 습득과 동시에 발현한다(송승하, 김영태, 이수정, 김정아, 2017).

영아는 생후 6개월 이전부터 화용언어능력이 발달하는데, 낯선 사람의 말과 엄마의 말을 구별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투와 긍정적인 말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Stephens & Matthews, 2014). 생후 9개월 된 영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규칙을 이해할 수 있고, 12개월 즈음에는 비언어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14개월에서 32개월경에는 낱말을 구어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의사소통 행동도 빠르게 늘어난다. 이처럼 표현언어가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말 차례 지키기와 존대 표현 등과 같은 화용 규칙을 새롭게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동의 언어발달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김영태, 2014).

유아의 경우, 3세부터는 대화에서 형성되는 말을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주제 유지 능력을 획득한다. 기본적인 화용적 의사소통 기능은 3~4세부터 안정적으로 나타나지만, 약속 및 설득하기, 예의바른 표현과 같은 좀 더 발달된 수준의 언어사용은 9세 이후에 완전하게 습득한다(Snow, Pan, Imbens-Bailey, & Herman, 1996). 그리고 존대 표현은 4~5세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9세 정도에 완성한다. 특히 5세 전후의 아동은 친숙한 사람에게는 존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덜 친숙한 사람에게는 존대 표현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Baroni & Axia, 1989; Tsuji & Doherty, 2014).

6~7세경부터는 의사소통 규칙을 반영하여 설명할 수 있다(Collins, Lockton, &

Adams, 2014). 그 이후로 7세까지는 화자의 상태나 의도, 감정 등 담화를 사용하는 능력이 다양해지면서, 특정 활동이나 물건, 사람 등을 지칭하는 참조적 표현이 함께 발달한다(Davies, André-Roqueta, & Norbury, 2016). 9~12세에는 대화에서 단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발달함과 더불어 언어 사용의 오류가 감소하고(Ripich & Griffin, 1988), 관용어 습득은 17세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Spector,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용언어능력은 언어 이전기에 시작하여 아동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발달하며, 전반적인 언어 및 인지, 사회적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김영태, 2014; Adams, 2002). 화용언어능력은 단순히 단어를 학습하거나 문법적인 발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어나 문법 규칙 등과 같은 구문, 의미 및 통사론적 언어능력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더라도, 이를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을 때 화용언어능력이 미흡하게 되고 결국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이현희, 2018).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아와 동일한 순서로 언어를 습득하지만, 습득 속도는 일반유아보다 늦다(Mogtgomery, 2003). 예를 들어 일반유아들은 1세 정도가 되면 대부분 초기 낱말을 산출하는데, 언어발달지체유아는 2세 가까이에 첫 낱말을 산출한다. 그리고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아에 비해 수용 및 표현 어휘의 수가 적고, 2~3세에 나타나는 언어의 과대확장 및 과소 확장, 일반화를 오래 지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언어발달지체유아는 평균 발화 길이가 짧고 단순하며, 문장을 문법적으로 구성하지 못해 잘못된 문장으로 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들은 제시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하며,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자발적으로 단서를 활용하거나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박경애, 김영태, 2001).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제한된 언어능력으로 인하여 타인의 의사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들은 언어의 의미론적, 통사론적, 형태론적, 화용론적 측면과 관련된 언어적 요소의 일부 또는 전체에서 결함을 가진다(Adamson, 199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아에 비해 전반적인 의사소통 빈도와 의사소통 기능이 낮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대화를 차례대로 주고받거나,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이를 유지하는 주제 운용 능력 활용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과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대화나 주어진 상황에서 언어표현을 통한 문제 해결 기술이 부족하다(Liiva & Cleave, 2005). 이처럼 언어발달지체유아는 화용언어능력에 어려움이 있으며, 언어발달 수준이 낮다(김영태, 2014).

또한,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 이수근, 정유숙, 홍성도 그리고 김이영(1999)은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은 일반유아보다 더 많이 울고, 부딪히며, 던지는 등 부정적인 행동의 빈도가 잦다고 하였다.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아보다 대인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고집을 많이 부리며, 자기주장이 강하고,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 조절

을 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언어표현이 서툴고, 다툼이 많으며 쉽게 당황하고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특성이 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기질은 개인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행동 양식이자, 정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양식이며, 환경 자극에 대한 성격적 개인차를 의미한다(Rothbart, 1981). 이는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 사고 및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Kagan & Fox, 2006). 기질은 의사소통능력의 기반이 되는 언어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Rieser-Danner, 2003). 그 예로 주어진 과제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기질의 유아는 그렇지 못한 유아보다 언어발달 수준이 높았으며, 잘못고 밝은 성격을 가진 유아들이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빠른 경향을 보였다(Moreno & Robinson, 2005; Salley, Penneton, & Colombo, 2013).

의사소통장애의 여러 유형과 기질의 관련성 설명한 선행연구(이수근 외(1999); Conture, Kelly, & Walden, 2013; Dixon, Wallace, & Smith, 2000; Paul & James, 1990; Prior, Bavin, Cini, Eadie, & Reilly, 2011; Salley & Dixon, 2007; Salley et al., 2013)에서는 기질이 언어습득 및 언어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및 말더듬 등 의사소통능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특성은 연령이 증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Prior et al., 2011).

Prior 외(1993)는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이 일반유아 보다 더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언어발달 수준과 개별적 기질 특성에 적합한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질은 언어뿐만 아니라 환경적 상호작용과도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이희경, 김근영, 2015).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언어발달은 기질 특성과 환경의 요구 수준이 조화를 이룰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질 특성과 환경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부정적인 언어발달을 초래한다(Adams, 1990). 이러한 기질이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유용한 틀로 주목받아 온 개념이 기질조화적합성이다(Seifer, 2000).

Thomas와 Chess(1986)는 유아의 기질적 성향이 비슷하더라도 환경적 경험에 따라 발달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조화적합성(goodness-of-fit)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기질조화적합성은 개인과 환경의 조화로, 이는 유아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요인이다. 유아들의 기질은 주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반응을 유발하고,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들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정경희, 2017). 유아는 개인의 동기, 능력, 행동 양식 등이 환경의 요구나 기대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다. 반면에 환경의 기대 및 요구와 부조화를 이룰 때 발달이 왜곡되거나 부적응적 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서주현, 2009; Bates, 1976; Chess & Thomas, 1986).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조화로운 가정환경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준

다. 그중 어머니는 유아에게 일차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인적 환경이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다. 어머니의 언어 및 의사소통 행동 특성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Girolametto & Weitzman, 2002). 언어발달에 있어서 어머니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며 제공하는 언어 자극의 양, 형태 또는 언어 전략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정미, 이향수, 2007; 장유경, 임현정, 곽금주, 2004).

그러나 언어발달지체유아는 기질적 특성과 지체된 언어능력으로 인하여 사회적 의사소통 기회와 반응 빈도가 낮으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 기회가 부족하다. 그리고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어머니의 언어 학습 환경은 일반유아와 어머니의 언어학습 환경보다 상호작용의 빈도가 더 낮다(Cardoso-Martin, & Mervis, 1985). 언어발달지체 유아의 어머니는 일반유아의 어머니보다 상호작용이나 놀이 자극을 적게 제공하고, 유아가 시도하는 상호작용에 대해 반응성이 낮으며, 유아의 활동에 대해 통제적이고 지시적이다(하은빈, 2012).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소통 행동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Halle, Brady, & Drasgow, 2004). 이러한 언어발달지체유아에게 부모는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의사소통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Tye-Murray, 2003). 따라서 언어발달지체 유아의 어머니는 그들의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 특성에 적합하게 기대하고 요구해야 하며(Starkweather, 1990), 자녀의 기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질조화적합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Conture et al., 2013).

화용언어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화용언어능력 특성(오소정, 2019; 전혜인, 2016), 정서/행동문제(이은주, 오소정, 2019), 부모의 양육태도(김은향, 2020; 홍은지, 2021), 학령기 다문화(김민성, 김화수, 이근용, 2016; 김혜린, 한선경, 김영태, 2014), 또래관계(오현미, 2020; 이혜인, 2018), 화용언어평가도구(서유경, 안성우, 2015; 오소정, 2018; 이은주, 2010; 한승희, 오소정, 김영태, 2019), 6~9세 아동의 연령, 지능, 어휘수준, 성별, 언어문화차이 비교(이은주, 김영태, 오소정, 2019), 자폐아동(백소정, 2017; 송승하, 2019; 이명희, 송승하, 김영태, 2020; 이지영, 김지훈, 2018), 지적장애(김화수, 최예슬, 이근용, 2015; 김현희, 2018), ADHD(이민희, 임동선, 2014; 서유경, 안성우, 2018), 말더듬(박민아, 2017), 청각장애(염선미, 이은주, 2020)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화용언어능력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유아기는 잠재성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유아 및 아동기에 화용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전병운, 2012). 유아의 언어발달과 기질에 관한 선행연구(이지연, 장유경, 2005; 김현, 2008; 장유경, 이근영, 2006) 등과 언어적 결함을 가진 유아의 기질연구(이수근 외, 1999; 이상연, 안성우, 정경희, 2014; 박영선, 2015; 이희경, 김근영, 2015)에서는 언

어발달지체유아는 기질 특성에 따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이희경과 김근영(2015)와 일반유아의 언어발달과 기질 및 조화적합성 연구에서 언어 능력과 기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조화적합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일반유아의 기질과 기질조화적합성의 관계에 관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허미경, 이소은, 2010), 자기지각(장유진, 이강이, 2011), 지능(서주현, 2009), 정서 지능(김난경, 2001; 이순복, 김문숙, 2011), 정서조절(박재운, 2013; 이주연, 이사라, 2018), 자기결정력(박근주, 2014), 일상적 스트레스(이시자, 2013), 어린이집 적응(김기홍, 2009; 유민아, 2015) 등의 다양한 연구에서 기질조화적합성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언어발달지체유아를 대상으로 기질조화적합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화용언어능력은 적절한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 요소이며,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 또한 언어발달에 중요한 관련이 있다.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언어적 결함으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언어발달의 문제가 있으며, 화용언어능력에서도 일반유아 보다 더 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을 살펴 본 연구는 없으며, 이들의 기질 특성만 살펴보거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그리고 화용언어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고,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특히 언어발달지체유아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1-1.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차이는 어떠한가?

1-2.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조화적합성 차이는 어떠한가?

1-3.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화용언어능력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은 어떠한가?

2-1.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은 어떠한가?

2-2.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1.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담화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2.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3.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의사소통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4.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5.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 능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기질

기질은 유전적으로 내재된 특징으로 출생 직후부터 보이는 개인의 타고난 특성이며, 유아의 감정, 운동성, 주의집중, 반응성으로 측정될 수 있는 개인의 차이이다 (Rothbart, 1981). 본 연구에서 기질은 Rothbart(1981) 유아용 기질 척도(CBQ-VSF, Rothbart, 1981)의 3개 하위요인을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외향기질은 외부 자극에 대한 유아의 선호와 접근 및 정서적 반응과 활동수준이며, 부정정서기질은 분노와 좌절, 불안, 공포, 슬픔 등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이다. 그리고 주의통제기질은 실행 주의력의 효율성으로, उसे 반응을 억제하고 대안적인 반응을 활성화하는 능력이다 (Rothbart & Bates, 1998).

2) 기질조화적합성

기질조화적합성은 유아의 수용 능력과 동기 및 행동 스타일이 환경적 특성과 일치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 발달과, 불일치할 때 나타나는 왜곡된 발달과 부적응을 의미한다(Chess & Thomas, 1998). 본 연구의 기질조화적합성은 서주현(2009)이 사용한 개정판 기질 차원 검사(DOTS-R: Windle & Lerner, 1986)에 기초하여 유아의 기질 특성에 대해 어머니의 요구 및 기대 정도를 요구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아의 기질 및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나 요구의 일치도로 정의하였다.

3) 화용언어능력

화용언어능력은 상황과 목적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으로(Prutting & Kirchner, 1987) 청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화자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한다(김영태, 2014). 본 연구에서는 아동 화용능력 체크리스트(CPLC: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오소정, 이은주, 김영태, 2012)의 4개의 하위요인을 범주화하여 화용언어능력을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담화 관리능력은 대화차례나 주제를 조정하고 대화에서의 의사소통 실패를 수정하는 능력이다(오소정 외, 2012; Paul, 2007).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은 의사소통 상황의 맥락을 이용하여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결정하는 능력이다(Paul, 2007). 의사소통 의도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필요한 정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능력이다(박지현, 2001).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제스처나 시·공간을 상징으로 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언어를 제외한 모든 메시지를 의미한다(김우룡, 장소원, 2004).

4) 언어발달지체유아

Mogtgomery(2003)는 언어발달지체유아를 언어기술(Language skill) 발달은 느리지만 일반유아와 같은 순서로 언어를 습득한다고 하였으며,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언어 특성은 자폐증, 지적장애 등에서 나타나는 언어장애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를 일반유아와 같은 순서로 언어를 습득하지만, 언어발달 속도가 또래보다 1~2년 이내의 지체를 보이는 유아를 언어발달지체유아로 정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1) 기질의 개념 및 특성

기질은 개인의 행동 양식과 정서적 반응유형으로 정서, 운동, 반응성, 자기조절, 주의집중 등 생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과정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한다(Rothbart & Bates, 2006). 기질은 생득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감정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 반응에 대한 강도와 속도, 기분 상태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별적인 본성이다(Allport, 1961).

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기질적 개인차는 유아의 행동, 언어, 사회, 정서 발달을 결정짓는 요인이다(Conture, Kelly, & Walden, 2013). 이러한 기질에 대해 연구자마다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어떤 기질 개념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유아의 기질 특성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기질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Thomas와 Chess의 행동스타일 접근(Behavioral styles approach), Buss와 Plomin의 차원적 접근(Criterial approach), Rothbart의 심리생물학적 접근(Psychobiological approach), Goldsmith와 Campos의 정서조절접근(Emotion regulation approach), 그리고 Kagan의 행동억제접근(Behavioral inhibition approach)으로 구분된다(Zentner & Shiner, 2012).

개념적 접근에 따라 기질을 살펴보면 첫째, Thomas와 Chess의 행동스타일 접근(Behavioral styles approach)에서는 기질이 선천적인 요소이며, 환경에 의해 조절된다고 보았다. 기질은 유아가 기회, 외부의 자극, 요구, 기대에 대한 반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아의 기질은 환경과 조화로우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여 조화롭게 발달한다. 반면 유아의 기질이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면 부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한다(Chess & Thomas, 1986; Thomas & Chess, 1991).

이들은 기질을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느린 기질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순한 기질의 유아는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정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부모가 양육하기에 쉬운 유형으로 분류한다.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대체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이나 욕구에 강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특징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부적응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느린 기질은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의 기질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하였다.

둘째, Buss와 Plomin의 차원적 접근(Criterial approach)에서 기질은 반응의 일상적인 강도 및 속도, 정서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 일반적인 기분 상태 및 강도를 포함하는 개인이 가지는 본연의 특징적인 현상이며, 선천적인 형식에 의한 유전적인 현상이다(Allport, 1961). 또한 기질은 생물학적 의미로 정의되며, 기질이 유전에 의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기질에 따라 환경과 상호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Buss & Plomin, 1986).

여기서 기질이란 성격의 일부로서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을 말한다. 또한 기질에 대하여 유전적, 생리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 안정적이며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식하였다(서정은, 2005). 이러한 차원적 접근에 따른 이론들은 전통적 성격심리학과는 달리 성격의 발달 과정에서 기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셋째, Rothbart의 심리생물학적 접근(Psychobiological approach)에서는 기질을 생물학적 요인에 근거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특성으로 개인차가 있다고 보았다. 즉 기질은 행동 양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며, 유전, 성숙과 경험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반응성(reactivity)과 타고난 자기 조절(self-regulation) 능력으로 인한 개인차가 있다(Rothbart & Bates, 1998)고 보았다.

이때 반응성은 행동과 내분비계, 자율 및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반응 특성을 말한다. 그리고 자기 조절은 접근과 회피의 주의력 및 행동적 패턴과 같은 반응성을 조절하는 기능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들은 반응성의 기질적 측면을 외향성(surgency)과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로 보고, 자기 조절의 기질적 측면을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로 구분하여 세 가지의 상위요인을 제시하였다(Rothbart & Derryberry, 1981).

즉, 심리생물학적 접근에서 기질은 타인과 환경에 대한 성향이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다. 따라서 모든 유아의 기질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타고난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넷째, Goldsmith와 Campos의 정서조절접근(Emotion regulation approach)에서는 심리생물학적 개념에 근거하여 기질을 정서표현을 조직하는 구조로 보았다. 그리고 분노, 즐거움, 두려움, 흥미-접근, 운동적 활동 등의 기질 차원에 관심을 가졌다. Campos 외(1983)는 기질을 정서의 행동 표현에 대한 각성수준에서 강하고 순간적인 개인차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인차는 개인의 내면, 개인 간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Goldsmith & Campos, 1982).

다섯째, Kagan의 행동억제접근(Behavioral inhibition approach)에서는 기질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의 중심을 행동억제에 두었다(Kagan, 1989). 행동억제란 유아가 낯설거나 도전적인 상황에 처할 때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등 정서적 불균형이 나타나는 반응양식이나 행동으로 정의한다(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2002).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아동기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사회불안 장애를 증폭시킬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였다(Biederman et al., 2001; 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Neal, Edelmann, & Glachan, 2002; Schwartz, Snidman, & Kagan,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질은 학자들마다 정의를 달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견해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론할 수 있다. 기질이란 유아의 행동 양식으로 타고난 개별성향이며, 주위 환경과 자극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성격의 일부분이다. 또한 기질은 유아의 성격 발달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사회 환경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개인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배울미, 정진화, 2009). 이에 본 연구자는 기질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로 접근을 시도한 Rothbart의 기질 개념을 적용하여 유아의 기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기질의 관련변인

기질은 유아발달의 결정요인 및 개인차를 설명하는 생애 초기의 주요 특성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배울미, 정진화, 2009). 하지만 기질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구성요소는 기질을 보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며, 기질 평가 역시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정경희, 2015).

기질 척도는 크게 세 가지 이론에 근거하여 국내에 소개되어 왔다. 그중에 Thomas와 Chess(1977)의 유아기 기질 척도인 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PTQ) 그리고 Buss와 Plomin(1986)의 부모보고용 기질 척도인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EAS)가 국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먼저 Thomas와 Chess(1977)의 PTQ는 개별적 접근에 기초하여 3~7세 유아의 부모가 자녀의 기질을 보고하도록 개발한 척도이다. Thomas와 Chess(1977)는 인간의 고유한 행동 양식은 타고난 것이며, 기질은 그러한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기질을 행동 내용으로 평가하지 않고 행동 양식으로 보고 유형화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다(위영희, 1994).

또한, PTQ 측정에서 기질 유형이 서로 중복되는 하위개념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인타당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Campos et al., 198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Buss와 Plomin(1986)은 PTQ보다 연령대가 확장된 1~9세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는 부모보고용 기질 척도(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EAS)를 개발하였다. EAS 척도는 20문항으로 기질이 유전적으로 고정된 특성이기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하였다(Rothbart & Derybery, 1981; Rothbart & Bates, 2006). 이로써 새로운 기질 척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하였고 Rothbart의 기질이론(Rothbart & Derybery, 1981)이 주목받았다.

Rothbart의 이론은 기질의 신경학적 기초와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며, 기질 개념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Putnam, Gartstein, & Rothbart, 2006). 또

한 기질을 유형화하거나 범주화하지 않고 하위영역별로 각각 평가함으로써 기질의 세부적인 개인차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Rothbart와 Derryberry(1988)는 기질에 대한 구조적 측면과 발달 과정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질 개념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기질 척도를 구성하였다. 특히 기존의 기질 척도들이 지니는 타당성이나 측정 구조의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기질 척도는 반응성과 자기조절 능력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과 타인의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만 3~5세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척도로 볼 수 있다(Cole, 1986; Cole, Luby, & Sullivan, 2008; Denham, 1986; Denham & Kochanoffk 2002; Eisenberg & Fabes, 1992; Lemerise & Arsenio, 2000).

Rothbart 기질 척도에서는 반응성과 자기조절,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외향성, 부정정서, 주의통제의 3가지 기질 범주와 15개 차원을 구성한 기질 척도를 제안하였다. “기질 척도의 15개 차원을 살펴보면, 접근성은 기대되는 즐거운 활동에 대한 흥분감과 긍정적인 기대의 양을 의미한다. 강한 자극 선호성은 높은 강도의 자극, 복잡성, 새로움, 비율, 불일치를 포함하는 상황과 관련된 기쁨이나 즐거움의 양을 의미하며, 미소/웃음은 자극의 강도, 복잡성, 불일치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의 양이다. 활동 수준은 이동 속도와 운동 범위를 포함하는 대근육 운동 활동의 수준을 의미한다. 충동성은 반응 시작 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수줍음은 새롭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리거나 억제된 접근을 말한다. 불안은 빛, 움직임, 소리, 감촉의 강도, 비율, 복잡성 등을 포함한 자극의 감각적 특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의 양이다. 다음으로 공포는 예상되는 통증이나 스트레스,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상황과 관련된 불안, 걱정 또는 초조함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정서의 양이다. 분노/좌절은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방해 혹은 목표에 대한 차단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의 양을 말하며, 슬픔은 고통, 실망 및 대상 상실에 대한 노출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 및 기분 및 에너지양이다. 반응회복률/진정성은 최고조의 스트레스나 흥분 또는 일반적인 각성 상태에서부터 회복되는 정도를 말하며, 자극의 통제는 지시 혹은 새롭거나 불확실한 상황 안에서 계획하고 부적절한 접근 방법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 주의집중력은 과제와 관련된 정보나 자극에 주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며, 낮은 자극선호성은 낮은 강도의 자극, 비율, 복잡성, 새로움, 불일치를 포함하는 상황과 관련된 기쁨이나 즐거움의 양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극민감성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작고 낮은 강도의 자극을 탐지하는 정도를 말한다”(이소연, 최은실, 2020). 즉, 외향기질은 외부 자극에 대한 유아의 선호, 정서적 반응 및 접근과 활동수준을 의미하며, 부정정서기질은 분노와 불안, 좌절, 슬픔, 공포 등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의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주의통제기질은 주의력의 실행과 효율성으로, 우세 반응을 억제하고 대안적인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다

(Rothbart & Bates, 2006).

또한,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CBQ 전체 척도는 간편형이나 초간편형 문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간편형은 총 94개 문항으로 15개 하위영역이 6~8개 문항으로 각 하위영역 점수와 상위요인 점수를 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초간편형은 각 하위영역에서 2~3개 문항씩 총 36개 문항으로 3개 상위요인 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Rothbart & Bates, 2006). 즉, 연구 목적에 따라 전체 척도에서 간편형이나 초간편형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임지영, 배운진, 2015).

국내에서 Rothbart의 CBQ를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만 3~5세 조선족 유아와 한국 유아의 기질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 분석(원영미, 박혜원, 이귀옥, 2004), 만 7~8세 아동의 초기 학교 적응력과 어머니 양육의 관계에서 부정적 기질의 조절 효과(김수정, 곽금주, 2001), 학령 전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기질 특성 비교(박영선, 2015), 만 3~5세 유아의 기질과 부모 자녀 관계가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김정은, 신유림, 2015)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또한 이경옥(2004), 임지영과 배운진(2015)이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CBQ에 대한 타당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국내의 유아들 또한 외국의 유아들의 기질 구조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들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기질을 평정하였다. 즉 부모에 의한 평정은 주양육자로서 유아와 밀접한 관계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유아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데 더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othbart(1981)의 기질 척도는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생물학적 기저에 의한 발달적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반응성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기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othbart의 유아 기질 척도를 바탕으로 일반유아와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기질은 언어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Rieser-Danner, 2003). 2세 때의 기질은 3세 때의 언어발달 수준을 예측하며(Slomkowski et al., 1992), 영아의 활동적 기질은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다(조유나, 홍지은, 2010). 또한 기질적으로 쉽게 흥분하지 않는 아이는 언어 학습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 언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이 풍부하다. 반면 특정 자극에 격하게 반응하는 아이는 언어 학습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언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기질과 언어발달의 관련성을 나타내며, 인지 또한 언어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언어발달은 주변 환경 자극에 영향을 받으며, 유아의 기질은 환

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소이다(이수근 외, 1999).

언어발달이 빠른 유아는 주어진 과제에 오래 집중하였으며(Salley et al., 2013), 잘 웃고 밝은 성격을 가진 유아가 또래보다 빠른 언어발달을 보였다(Moreno & Robinson, 2005). 또한 순한 기질의 영아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보다 또래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더 많았다. 또한 이들의 기질을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중간 기질의 영아가 언어적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설명’과 ‘지시’에서 상호작용이 더 많았다(양수정, 2007).

비슷한 맥락에서 영아의 긍정적인 기질성향은 영아가 정서 단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김민화, 광금주, 성현란, 심희옥, 장유경, 2003). 즉 순한 기질의 영아는 긍정적인 정서를 통해 성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 기회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반응표현이 격렬하고, 새로운 자극을 쉽게 회피하며, 낮은 적응력으로 인해 언어적 상호작용의 경험이 적는데 이런 점들은 언어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김수지(1996), 조은옥과 최영희(2003)는 순한 기질의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또래 간 언어적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질적 개인차에 따라 언어적 결함을 가진 유아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Conture 외(2013)는 유아의 초기 언어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질 특성이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및 유창성장애 등 언어 및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은 과하게 활동적이고 부주의하며, 지속성이 부족하고, 더 까다롭고 덜 긍정적인 기질 특성을 보인다(Prior et al., 2011). 이러한 기질은 일반유아보다 다툼이 많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 때문에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이수근 외, 1999).

Caulfield(1989)는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은 울고, 부딪히고, 던지는 등 부정적인 행동 문제의 빈도가 일반유아보다 빈번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언어적 결함이 원인이라고 하였다(Prior et al., 2011). 즉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없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다.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은 정서적 특징으로 말수가 적거나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며, 말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하거나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또 대화 상황에서 이해 능력이 부족하고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하다(조명숙,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이 타인과의 대화에서 필수적인 화용언어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2.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조화적합성

1) 기질조화적합성의 개념 및 특성

기질조화적합성은 개인과 환경의 조화로 유아 발달이 가장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다. 기질조화적합성 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가정환경 내에서 일차적으로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Thomas & Chess, 1977).

Thomas와 Chess(1977), Lerner(1984)의 기질조화적합성(Goodness of fit) 모델에 따르면 적응적 발달은 아동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이 아동의 성장 환경인 물리적·사회적 맥락의 요구와 일치할 때 나타난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질을 포함하여 아동이 갖는 특성 자체가 아동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아동의 특성이 이들 맥락의 요구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양육의 질이 달라지고, 발달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아동 기질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부모가 갖는 교육적 목표나 기준,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ameron(2009)은 부모의 기질, 인내심 부족, 비승인과 같은 부정적 태도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을 강화하는데 이렇게 강화된 기질은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모든 기질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순한 기질 특성을 가진 유아도 그들의 환경과 부조화가 나타나면 부정적 발달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Bates, 1976; Chess & Thomas, 1986).

순한 기질의 유아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상호작용하는 환경 내에서 요구하는 것이 적다. 그래서 자극을 적게 받아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즉 부모가 순한 기질의 유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유아의 기질 특성 때문에 양육에 힘들어한다면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Newland & Crnic, 2016).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더 많이 울고 보채기 때문에 부모가 양육에 더 신경을 쓰고, 반응적인 태도를 취한다(Cameron, 2009). 이처럼 환경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조화가 기질에 관계없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느 기질 패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서주현, 2009; 허순영, 2004).

또한, 기질조화적합성 모델에서 유아의 환경적 요구들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아는 다양한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경우도 있고,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환경적인 요구들이 반드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발달적 개념의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적합성은 부적응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질조화적합성은 사회적 환경 내에서 개인이 어느 정도 잘 기능하고 적응하는가를 논의할 때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기질조화적합성은 개인의 동기, 능력, 기질, 행동패턴, 그리고 환경적 요구, 기대, 제약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하나의 예방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윤진, 김정민, 1991).

이처럼 기질조화적합성 모델은 적응적인 심리적·사회적 기능이 개인적 특성이나 상

황백락적인 요구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 특성이나 발달의 근원을 알아보고자 할 때, 유전의 영향이나 환경적 경험의 영향,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로 해석하기보다는 유전적인 근원, 태아기 및 출산 시의 영향, 그리고 출생 이후 일생 동안 겪는 경험들 모두가 한 개인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최영희, 1993).

아동의 특성과 성장 환경인 물리적·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양육의 질이 달라진다. 이때 양육의 질에 따라 유아의 발달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질조화적합성 모델에서는 아동의 기질 특성이 부모의 양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러한 특성에 대한 양육자의 기대, 요구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Bates, 1976).

한편, Buss와 Plomin(1986)는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 어머니와의 기질적 조화가 아동발달에 더욱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근거들에서는 유아의 발달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유아의 기질 특성뿐 아니라,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나 요구도 중요한 변인으로 여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질에 대한 조화적합성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질조화적합성의 관련변인

기질조화적합성 모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자들에 의해 개념적으로 지지되어 왔으며, 다양한 발달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김광웅, 이미애, 1995; 윤진, 김정민, 1991; 박해송, 최은주, 2005; 천희영, 1996; Lerner et al., 1985; Lengua, Wolchik, Sandler, & West, 2000; Thomas & Chess, 1977). 또한 기질조화적합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밝히려는 시도가 계속 진행되었다.

유아의 기질과 환경적 맥락의 조화적합성 간의 관련성이 아동의 정신 건강(Thomas & Chess, 1986), 사회적 역량(하경애, 1997), 정서지능(김난경, 2001), 자기조절과 사회적 능력(황미영, 2008), 부모-자녀 관계(최영희, 1993), 지적능력(서주현, 2009), 자아존중감(백은주, 1996), 양육스트레스(정지연, 2002), 또래관계(Lerner et al., 1985), 학교 및 가정에서의 문제행동(김민희, 1998; Lerner et al., 1985), 학업성취도(김말경, 1996) 등 유아의 인지적·심리 사회적 발달 전반에 걸쳐 확인되었다.

또한 기질과 환경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 요구도(배경숙, 조희숙, 2004; 조윤영, 2014; 천희영, 1998)와 기질조화적합성(김정민, 1992; 박재운, 2013; 서주현, 2009; 이소은, 2011; 이주연, 이사라, 2018; 이희경, 김근영, 2015; 전은하, 박주희, 2015; 천희영, 1995)으로 구분하여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를 다루어 왔다.

이 중 기질조화적합성 연구는 대부분 Windle와 Lerner(1986)의 개정판 기질 차원 검사 맥락특유이론(DOTS-R,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1986)을

바탕으로 하였다. DOST-R은 조화의 적합성 모델에 따라 개인의 기질과 관련된 특징을 측정한다. 문항은 검사 대상자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하며 각 54개로 구성하였다. 그중 DOTS-R Child의 구성은 아동용 검사로 학령기 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부모가 응답하는 방식의 9개의 차원이다. 9개의 차원은 규칙성-일상습관(Rhythmicity-Daily Habit), 과제지향성(Task Orientation), 활동수준-수면(Activity Level-Slep), 활동수준-일반(Activity Level-General), 융통성 대 경직성(Flexibility vs Rigidity), 접근 대 철회(Aproach vs Withdrawal), 규칙성-수면(Rhythmicity-Slep), 기분(Mood)이다. 예를 들어 끈기 문항은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활동을 지속한다’로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모의 예상되는 요구 문항은 ‘나는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한 가지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로 측정한다(허미경, 이소은, 2010).

Lerner(1984)는 여러 가지 맥락적인 요구들 가운데 아동의 기질에 대하여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이 지니는 태도, 기대, 가치의 형태로 부과되는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 혹은 또래들의 기질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기질조화적합성의 측정은 다양한 발달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기질부조화 측정은 자녀가 하지 않기를 바라는 행동을 부모가 선택하여 자녀의 실제 행동 수준을 평정하는 방법(Feagans, Merriwether & Haldane, 1991; Paterson & Sanson, 1999)과 아동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 만족도 문항으로 조화로운 합치모델을 나타내는 방법(최영희, 1993), 아동의 기질에 대한 불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허순영·이경옥·김영희, 2005)이 있다. 또한 천희영(1995)은 아동의 기질 점수와 어머니의 요구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기질의 조화로우름을 연구하였다.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와의 조화적합성연구를 살펴보면(김기홍, 이주리 2010; 김난경, 2001; 박재운, 2013; 서주현; 2009; 장유진, 이강이 2011; 정지연, 2002; 허미경, 이소은, 2010), 조화적합성 점수를 어머니의 요구도 점수에서 유아의 기질 점수를 뺀 절댓값 계산하였으며, 그 정도가 작을수록 조화롭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절댓값으로 수치화된 조화적합성은 모든 차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방법은 기질에 대해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가 조화로운지, 조화롭지 못한지의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방향성을 알 수 없다. 즉, 어머니의 요구수준과 유아의 기질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 반대로 모두 낮은 경우는 둘 다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어머니의 요구수준과 유아의 기질수준이 조화롭지 않은 경우에도 차이 정도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규칙기질에서 어머니의 규칙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낮는데 유아의 기질수준이 높은 경우(기상시간이 일정하게 일찍 일어나는 유아에게 늦게 일어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규칙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는데 유아의 기질 수준이 낮은 경우(아침잠이 많은 유아에게 일찍 일어나라고 말하는 어머니)는 유아에게 미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이주연, 이사라, 201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유민아(2015)는 유아의 기질 특성 점수와 어머니의 요구도 점

수의 평균을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화적합성을 연구하였다.

다시 말해, 기질조화적합성은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가 유아의 기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들의 상호작용 변인들이 아동의 기질을 예측하거나 발달을 돕는다고 할 때, 유아의 발달과정에서 언어 지연·지체의 주요인 중 하나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유아의 조화적합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서주현, 2009). 기질조화적합성은 유아의 언어발달에서도 중요한 변인(이희경, 2014)임을 밝혔다. 또한 조화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측정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유아의 발달과 조화적합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입증한 조화적합성 모델을 근간으로 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기질조화적합성 변인의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조화적합성

기질조화적합성은 기질이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유용한 틀로 주목받아 온 개념이다(Seifer, 2000). 이러한 개념은 언어발달 맥락에서도 유사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이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 수준의 조화는 언어발달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이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가 잘 맞지 않으면 부정적인 언어발달을 초래할 수 있다(Adams, 1990).

기질조화적합성은 행동 문제 및 발달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유아에게 특히 중요하다.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이미 위험이 존재하는 유아로 일반유아보다 약 3배 높은 비율의 행동 발달 문제가 나타났다(Baker, Fenning, Crnic, Baker, & Blacher, 2007). 그리고 어머니-유아의 적합성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육아 스트레스는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Newland & Crnic, 2016).

또한, 언어발달지체유아와 부모의 적합성은 이들의 상호작용에 변화를 주었다. 실제 부모들은 유아가 목표 행동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키워주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의 적합성은 단순한 놀이에서 목표지향적인 놀이의 발달을 돕고,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긴장도를 낮춰 유아와 편안한 상호작용을 이끌었다(Beck, Daley, Hastings, & Stevenson, 2004).

Vygotsky(1978)는 유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을 모방하고, 이를 내면화하면서 고등정신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아이가 어른과 대화할 때 어른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방하면서 점차 독자적인 인지과정을 경험한다. 아이가 어른과의 공동 활동에서 의사소통하는 언어의 수준과 아이가 혼자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수준 사이에는 간격이 있으며, 이를 근접발달영역이라고 한다. 이 영역은 교육적 지원이 제공될 때 개입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이때 효과적인 발판이 유아의 요구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어머니와 유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은 근접발달영역에서 유아의 적응력과 적절한 참여를 돕는 변인이다(Beck, Daley, Hastings, & Stevenson, 2004).

유아의 언어발달은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의 질적인 수준과 상관이 있다(이지영, 1974). 언어 표현력과 조직력이 늦게 발달하는 유아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제한된 어휘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추상화·일반화하고 긴 문장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어머니는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한다(김영선, 1999). 하은빈(2012)은 말이 늦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 특성 연구에서 말이 늦은 아동의 어머니는 의사소통 적절성이 낮고, 부적절성이 높았으며, 의사소통의 성공이 적은 데 비해 실패가 많았다. 또한 말이 늦은 아동의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질문하기는 적고 피드백이 많았으며,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즐거움과 언어적 칭찬이 유의하게 적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부모나 양육자의 긍정적이고 반응적인 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기질조화적합성 개념은 기질적 성향이 유사한 유아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경험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발달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능력 및 기질의 특성은 환경적 요구 및 기대와 조화를 이룰 때 최적의 발달이 가능하다. 반면 유아의 기질과 환경 간 부조화는 유아의 심리적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문제행동을 야기할 가능성을 만든다(서주현, 2009). 결과적으로 기질조화적합성은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환경적 요구 사이의 적합 정도를 의미하며, 최적의 발달은 개인의 기질 특성이 환경적 요구 및 기대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Thomas & Chess, 1986). 이런 의미에서 기질조화적합성은 기질과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론적 개념이다(Conture et al., 2013).

Adams(1990)는 아이들이 말을 더듬는 것은 그들의 기질 특성과 환경적 요구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는 ‘요구-능력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아동기 언어장애는 환경이 부여하는 요구가 개인이 수용 가능한 인지적·언어적·정서적 특징을 넘어설 때 발생한다. 따라서 언어적 결함이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들의 언어능력을 높이는 것 외에 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같은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Starkweather, 1990). 실제로 아동의 발화능력은 환경적 요구가 줄어들어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atner & Guitar, 2006). 즉 요구-능력모형은 유아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아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유아의 기질 특성과 환경적 요구로 설명한 기질조화적합성 개념과 일맥상통한다(Conture et al., 2013).

언어발달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희경(2014)은 일반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기질조화적합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어표현에는 기질적 요소를 언어 이해에는 기질조화적합성 요소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기질조화적합성이 유아

의 언어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주었고, 기질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의사소통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과 관련하여 언어발달지체유아를 대상으로 한 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언어결함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단순언어장애와 기질(정경희, 2017), 학령 전기 말더듬아동의 기질(박영선, 2015), 장애유아의 기질(이상연, 안성우, 정경희, 2014) 등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한 기질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연구에서 기질과 조화적합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기질과 기질조화적합성에 관하여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의사소통에 기반이 되는 화용언어능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

1) 화용언어능력의 개념 및 특성

인간은 출생 직후부터 소리내기, 울음, 미소, 몸짓, 등 사회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보이며, 사회성의 발달 및 언어의 습득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발달한다(Philofsky, Fidler, & Hepburn, 2007). 또한 발달하면서 언어의 의미 및 문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화용론적인 능력도 습득해 간다.

언어의 구성요소는 의미론, 구문론, 형태론, 음운론, 화용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화용론은 상황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있으며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즉 화용론은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화용론적 언어능력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언어 영역으로 사회적·정서적·의사소통적 측면을 포함한 행동을 뜻한다(Adams, 2002).

화용언어능력은 생후 6개월 이전부터 발달하고, 아기는 낯선 사람의 말과 엄마의 말을 구별할 수 있다. 이들은 부정적인 말투와 긍정적인 말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Stephens & Matthews, 2014). 8~9개월에는 상호작용에서 주고받는 규칙을 인식하게 되며, 12개월이 되기 전에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표현할 수 있다. 14~32개월의 유아들은 단어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의사소통 행동도 빠르게 늘어난다(Snow et al., 1996). 이들의 표현 언어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말 차례 지키기나 존대 표현 등과 같은 화용 규칙을 새롭게 적용하고, 실수를 수정하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 간

다. 또한 대화에서의 주고받기는 3세 정도에 형성되기 시작하고, 주고받는 말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면서 안정된 주제 유지 능력을 갖는다(Roth & Speckman, 1984).

한편 화용언어능력의 기능은 3~4세에 나타나지만 약속하거나 공손한 표현, 설득하기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은 9세 이후에 완전하게 습득한다(Snow et al., 1996). 존대 표현의 경우, 4~5세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9세 정도에 완성한다. 특히 5세 전후의 아동은 친숙한 사람에게는 존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덜 친숙한 사람에게는 존대 표현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Baroni & Axia, 1989; Tsuji & Doherty, 2014).

또한 6~7세경부터 아동은 상위화용능력인 의사소통 규칙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출현하기 시작한다(Collins, Lockton, & Adams, 2014). 이들은 5세에 특정 주제로 이야기를 산출하는 능력이 나타나며, 3~4세는 대화나 산출된 이야기를 통해 정보를 얻고, 4~6세는 간접적인 의미 추론도 출현하기 시작한다(Bernicot, Laval, & Chaminaud, 2007). 그리고 유아의 인지 능력 확장 과정에서 이야기 산출 능력이 나타나며, 만 4세 이후 응집성, 참조나 추론과 같은 상위화용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7세는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능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Hanline, Nenes, & Worthy, 2007).

아울러 이야기 맥락에서 화용능력을 확장하고(Adams, 2002), 특정 사건이나 인물, 사물등을 지칭하는 참조 표현이 동시에 발달한다(Davies, André-Roqueta, & Norbury, 2016). 9~12세는 문장 사이의 연결을 가리키는 덩이글의 단서 사용이 증가하면서 구·문법적 오류가 감소하며(Ripich & Griffin, 1988), 관용어 습득은 17세까지 발달한다(Spector, 1996).

유아의 화용언어능력 발달은 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만 2세 아동은 대화 상대자에게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여 두 번 정도의 말차례 주고받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대화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화 상대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말보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Markus, Mundy, Morales, Delgado, & Yale, 2000). 만 3세 아동은 대화 상대방과 더 원활한 말차례 주고받기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지금, 여기”와 관련된 짧은 대화에서만 간으하여 그 범위가 한정적이다. 만 4, 5세 아동은 간접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간접적인 표현방식이 크게 증가한다(이승복, 1994).

서경희(2010)는 학령 전기 아동 76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 하위 항목에서 3세 집단은 정형화된 언어범주에서 4, 5, 6세 아동 집단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적절한 시작과 맥락의 사용 범주에서는 5, 6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또 비구어적인 의사소통 범주에서는 3세 아동 집단이 5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임동선 외(2015)는 만 2~5세 아동의 자발화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상호작용 기술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아동

집단은 발화의 수, 반응 횟수, 대화 차례 주고받기 횟수, 대화 차례 개시 횟수 등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례하였다.

화용언어능력은 대화 화용능력과 이야기 화용능력으로 나눈다(Paul, 2007). 대화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화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참여자가 자유롭게 번갈아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로, 사전에 많은 계획이 필요하지 않고 문법 구조에 따라 구조화하지 않는다. 반면 이야기는 잘 알려진 옛날이야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 개인적인 경험 다시 이야기 하기,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에서 보았던 것 다시 말하기 등이 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이야기는 탈맥락화된 독백이 있으며 대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직화된 형태의 차이가 나타난다(이현정, 김영태, 윤혜련, 2008).

유아의 대화에서 화용능력의 하위 영역별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담화 관리하는 대화 차례나 주제를 조정하고 대화에서의 의사소통 실패를 수정하는 능력이다. 즉 유아는 성공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의 전체 문맥과 상황, 그리고 대화 차례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또 유아는 주제를 개시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발휘한다(오소정 외, 2012; Paul, 2007). 유아의 대화기술은 대화에서 차례 주고받기 기술을 먼저 습득하며, 점진적으로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이 발달되면하고 주제운용능력이 발달한다(허현숙, 이윤경, 2012). 일반적으로 2세가 되면 인지적 처리가 자유로워지고 대화 상대방에게 반응할 수 있다. 이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두 세 번 차례가 오는 짝막한 대화에 끼어들 수 있고, 논의의 주제를 소개하거나 바꿀 수 있다(Marton & Schwartz, 2003). 이런 기술은 점차 발달하여 학령 전기에는 대화 역할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전제하거나 가정하기를 의식하여 정보를 제한하며, 행위 보다는 태도, 상대, 느낌에 대해 더 많이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화의 길이는 짧고, 차례 바꾸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참여에서는 어려움을 나타낸다(이현정, 2008; Scott, 1988).

둘째,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은 의사소통 상황의 맥락을 이용하여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결정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청자나 비언어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말의 내용이나 목소리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아동은 선생님이나 또래에게 다르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다양한 청자의 나이, 위치,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Paul, 2007). 이러한 전제 능력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언어능력이나 적절한 정보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고 고려하여 내용을 조절한다(오소정 외, 2012). 전제는 청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화자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의사소통 상대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상황 맥락의 정서와 운율이 불일치할 경우, 5세 아동은 상황 맥락에 의존하여 감정을 추론하지만, 9세 이상 아동은 상황 맥락과 운율, 모두에 의존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2001).

셋째, 의사소통 의도는 의견 제시 및 주장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행동이나 정보를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능력이다. 즉 이것은 상대방의 질문, 요청에 적절히 답하고 대응하는 능력이다(박지현, 2001). 이러한 의사소통 의도에서는 구어적 혹은 비구어적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의사소통 의도 발달을 살펴보면, 만 2세부터 반응의 비율이 감소하고, 요구하기, 객관적 언급하기 그리고 주관적 진술하기의 비율이 증가한다. 즉 만 2세를 전후로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참여자로서 자발적인 발화가 증가한다(홍경훈, 김영태, 2001). 의사소통 의도에서 ‘요구하기’는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여 말로 표현하는 언어적 지식, 사회적 지식, 사회 인지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Mctear & Conti-Ramsden, 1992).

학령기 이후에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근거를 대거나 정당화하여 설득하는 방법을 배운다(Garvey, 1975). ‘간접적 요구하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는 규칙을 배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고(이승복, 1994), 의사소통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간접적 요구하기가 발달한다(박지현, 2001).

Tuagh(1997)는 5~7세 일반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은 초기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인지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이러한 변화에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하고 사건과 생각을 서로 관련지어 복잡한 상징놀이에 참여하는 의사소통 의도가 나타난다(Paul, 2007). 이러한 상급수준의 의도에는 상대방을 향한 지시, 자기 지시, 현재나 과거 사건에 대해 보고하기, 감정이입하기, 근거 및 추론, 예측하기, 상상하기, 자기 충족적 기능과 상호작용 기능 등이 있다(오소정 외, 2012). 또 언어를 사용하기 전 단계의 아동들에게는 얼굴 표정과 제스처가 주된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의도는 비구어적 행위인 얼굴 표정, 제스처, 억양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

넷째,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몸짓이나 시간 또는 공간을 상징으로 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소통 양식이며 언어를 제외한 메시지를 의미한다(김우룡, 장소원, 2004). 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 바람, 의견, 또는 인식을 말 이외의 다른 방법인 눈 맞춤, 제스처, 얼굴 표정 등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영아기는 언어적 표현을 주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아니므로 영아기의 핵심적인 의사소통능력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다. 영아는 울음이나 미소, 표정, 몸짓, 응시 등과 같은 신체언어를 의사소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나타낸다(최영희, 1993). 특히 영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어떤 의사소통 기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깨닫고 이를 자신의 의사소통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사용한다. 이렇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시작된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발달하며, 같은 맥락에서 몸동작이나 신체 표현과 같은 신체언어를 사용하다가 점차로 언어적인 표현으로 발달한다. 이러한 발달은 연령이 증가하며 능숙해져 간다(이

근영, 1999; Shaffer, 1998; Vygotsky, 1978).

학령기에는 언어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명백하지 않은 미세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양하고 성숙해 간다(오소정 외, 2012; Prutting & Kirchner, 1987).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영아기에 나타났다가 언어를 습득 하면서 점차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한다. 하지만 언어 사용이 자유로운 성인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비언어적 표현은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경이, 2006). 또한 Birdwhistell(1970)은 전체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가 35% 이하인 데 반해 비언어적 요소는 무려 65%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Mehrabian(2007)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7%이며, 표정과 몸짓·자세 등 시각적인 요소가 55%, 음조나 억양·말투는 38%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용언어능력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학령기 이후까지도 발달하며 언어적·인지적·사회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화용언어발달은 발달기에 있는 유아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2) 화용언어능력의 관련변인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은 유아가 다양한 상황에서 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가를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다(오소정, 2018). 국내에는 언어발달 평가를 위한 다양한 표준화 검사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휘, 구문, 음운, 의미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화용언어 평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화용언어 평가를 위한 구성요소는 용어와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의사소통 스타일 조절, 의사소통 의도, 대화기술, 이야기 규칙, 상위언어 인식 등을 포함한다(Paul, 2007).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을 파악하려면, 유아가 대화를 할 때 요구하기, 주장하기, 선택하기, 부정하기, 협상하기, 자랑하기, 설명하기 등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화 상대와 상황에 따라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거나 말의 내용을 결정하고, 호칭의 사용 및 체언과 용언 등의 형태를 변형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Paul, 2007).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동생과 대화하는 것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청자의 나이,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화용언어능력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는 요소로 상위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상위언어는 언어의 성격과 특성을 의식적으로 반영하며 자신이 말하는 언어

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판단하여 이야기하는 능력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은 대화 시 눈 맞춤, 표정, 제스처, 신체적 접촉 및 거리를 평가하며, 상대방을 적절히 쳐다보는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Owens, 2014).

이 밖에 화용언어능력을 파악하려면, 짧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서 제시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야기 속의 정서나 인과적 추론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은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추론, 인과적 추론, 빠진 정보 추론, 불충분한 정보의 인식 여부와 독백과 대화의 형태도 평가한다(한승희, 2015).

화용언어능력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그 능력을 평가하는 직접평가하는 방법과 면담을 통해 보고 받거나, 일상생활에서 관찰된 아동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설문지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 교사, 임상가 등에 의한 관찰과 보고로 평가하는 간접평가가 있다. 화용언어능력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능력을 뜻하므로 이를 구조화된 상황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다(Paul, 2012).

화용언어능력의 평가도구를 살펴보면, 우선 국외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직접평가 도구로는 Test of Pragmatic Language-2(TOPL-2, Phelps Terasaki & Phelps Gunn, 2007)가 있으며, 물리적 맥락, 청자, 주제, 목적, 시각적 몸짓 단서, 추상적 개념, 화용 평가와 같은 7가지의 기초 화용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 간접평가도구로는 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2(CCC-2, Bishop, 2003)가 있으며, 말, 의미, 구문, 표현의 일관성, 정형화된 언어, 부적절한 개시, 비구어적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흥미와 같은 10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이외에 국외에서 사용하는 화용언어능력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Prutting와 Kirchner(1983)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상황에서 아동과 성인 및 또래를 평가자가 관찰하며 전반적인 화용기술을 평가하는 화용평가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행동은 크게 발화 행동, 명제적 행동, 언표내적 행위와 언향적 행위로 구분한다. 평가자는 기록지의 의사소통 행동들에 대해 '적절', '부적절' 그리고 '관찰기회 없음'의 세 가지 선택 반응을 주관적인 평가로 기록하였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용언어능력 평가는 놀이 상황을 녹화하여 관찰한 행동과 자발화를 분석하고 의사소통 기능의 출현 빈도와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홍경훈, 김영태, 2001). 이 평가에서 사용된 의사소통 기능 분석표는 정보 요구, 행동 요구, 명료화 요구, 사건진술, 주의집중 요구, 사물진술, 부정, 설명, 자기생각, 진술, 감정 표현, 의도 및 의지, 강조하기, 경고하기, 농담하기, 대답하기, 놀리기, 혼잣말, 부르기, 인사하기와 같은 19가지 화행을 포함한다(Dore, 1978). 이러한 요소는 놀이상황에 아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행동과 자발화를 연결해서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Bishop, 1998).

이에 화용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방식 중에서 부모가 아동의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고 목록이나 설문지를 사용한 평가가 신뢰도와 유용성 면에서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또래와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의 사용을 권고하였다(Sheehan & Sites, 1989).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표준화된 화용언어능력 평가 도구가 없으며, 정상적인 화용언어의 발달 순서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로 화용언어능력의 출현 연령을 발달척도로 하여 평가하기도 한다(이은주, 2010).

최근에 개발 중인 검사도구는 직접평가방식으로 한국아동 화용언어능력 평가(KOPLAC, 김영태 외, 개발 중)가 있다. KOPLAC는 아동의 화용능력을 ‘간접표현 이해 및 대처’, ‘대화 상대자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 ‘상황 문맥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 ‘담화 및 이야기 규칙’, ‘반어 및 비유’, ‘참조’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총 104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상황 그림과 이야기 녹음파일을 첨부하였다. 전해인(2016)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직접평가과제를 통해 어휘능력 지체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낮은 수행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고, 직접평가과제가 아동들의 화용언어능력을 변별하였다.

다음으로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간접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아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PLC, 오소정, 이은주, 김영태, 2012)가 있다. 이 도구는 화용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대화에서의 화용능력을 크게 말을 주고받거나 주제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인 ‘담화 관리능력’과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의사소통 내용이나 스타일을 조절하는 능력인 ‘상황에 따른 조절 능력’, 정보 제공하기, 요구하기, 인사하기 등과 같은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된 능력의 총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눈빛, 표정, 제스처 등 화용언어에 중요한 부분인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을 더한 4개 하위요인으로 화용언어능력을 평가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보고 체크리스트로 예비 검사를 통하여 내용 타당도, 내적 타당도, 신뢰도가 검증된 화용언어능력 검사도구이다(오소정, 2018).

CPLC는 화용언어능력 비교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CPLC척도의 예비연구에서는 일반아동과 주요 장애군(언어발달지체, 자폐범주성장애, 지적장애, 유창성장애 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백소정(2017)은 일반아동, 고기능자폐아동, 화용문제가 있는 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KOPLAC와 CPLC 두 평가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KOPLAC 전체 점수는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나 하위영역에서는 6개의 영역 중 4개의 영역에서만 일부 집단들 간 차이를 밝혔다.

반면 간접평가방식인 CPLC는 일반아동 집단과 장애아동 집단 간(고기능자폐아동, 화용문제가 있는 언어장애아동) 전체 점수를 포함한 4개의 하위 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CPLC에만 포함되어 있는 의사소통 의도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문항들이 화용평가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이나 어휘발달지체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CPLC로 평가한 화용능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희, 임동선, 2014; 한승희,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척도로서 유용성이 확인된 CPLC를 사용하여 언어 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언어발달 패턴은 일반유아와 같지만 속도가 또래에 비해 느리다(Motgomery, 2003). 이러한 언어특성은 문장 처리에도 영향을 주어 의미, 구문, 형태, 화용언어 영역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그 능력이 제한적이며 다양한 언어특성이 나타난다(이승환 외, 2002; Adams & Gathercole, 1995).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은 대부분 초기 낱말의 산출이 느리고, 1세 정도가 되면 초기 낱말을 산출하는 일반유아들보다 늦은 2세 가까이에 첫 낱말을 산출한다. 이후 이들의 수용 및 표현 어휘 수는 일반아동에 비해 느리게 발달하거나 제한적이고, 2~3세에 나타나는 언어의 과대·과소·일반화 또한 지속해 간다(김영태, 2014).

이들은 낱말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떠오르는 낱말의 이름을 명명하기보다 기능적인 특징만 설명한다. 또한 이들은 단어의 뜻이 은유적인 경우,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전환하여 표현되는 상대어(여기-저기, 이것-저것)를 이해하고 사용해 야 하는 경우, 접속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김영태, 2014).

언어발달지체유아는 평균 발화 길이가 대부분 짧고 단순하며 문법에 맞지 않게 문장을 구성하거나 알맞지 않은 어미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언어발달의 양적·질적 지표에서 또래 일반유아에 비해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제시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발적으로 단서를 떠올리는 것과 은유적인 표현의 이해에서 어려움이 있어 제한된 문제해결능력을 보인다. 즉 언어발달지체유아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타인과 대화를 유지하는 화용언어능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Paul, 2007).

이들은 대화 상황에서 구어적 반응성이 낮다(Bishop, Chan, Adams, Hartley, & Weir, 2000). 또한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전반적으로 언어적 지시에 낮은 수행력을 보이며, 의사소통 빈도와 기능이 전체적으로 일반유아보다 낮다(조유나, 홍지은, 2010). 즉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상호작용 기술 측면에서 대화 상대와의 발화를 주고받는 대화 차례 주고받기,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주제 운용 능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기술(Liiva & Cleave, 2005)과 대화 과정에 적합한 반응을 산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Rescorla, Bascome, Lampard, & Feeny, 2001).

화용언어능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과 더불어 확장되어 나타난다. 즉 반복해서 말하기, 용어를 정의하기, 또는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등과 같은 발달을 보인다. 그리고 사과하기, 약속하기, 거짓말하기, 공손하게 요청하기 등과 같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의사소통능력도 습득해 간다(신선희, 2019).

그러나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은 대화하는 상대방의 불명료한 말에 명료화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명료화 요구에 발화를 수정하는 기능이 일반유아에 비해 한계가 있다. 이들은 전제하기 기능이나 참조적 의사소통 기능에도 제한된 능력을 보인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은 상황이나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와 핵심단서를 파악하지 못한다. 또 타인의 질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대답하거나 질문을 하는 능력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Leonard, 1998).

언어발달지체유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적으며, 상호작용에 끼어드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김영태, 2012).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은 일반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이 적을뿐더러 의사소통 수단에서도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18~30개월의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은 의사소통 행동과 빈도가 일반 또래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조미라, 이윤경, 2010). Thal, Tobias 그리고 Morrison(1991)은 초기 어휘 발달이 느린 말 늦은 영유아 10명을 1년 후에 언어 및 몸짓 사용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은 일반 또래 수준으로 언어능력이 도달했으나 이에 도달하지 못한 영유아들은 여전히 언어 능력과 몸짓 사용이 저조한 특징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 행동은 수용 어휘 수(Bishop et al., 2012)로 언어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 빈도와 몸짓의 사용이 적을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Ellis, Caligiuri, Galasko & Thal, 1996; Thal, Tobias, & Morrison, 1991). 홍경훈과 김영태(2005)는 18~30개월의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단 연구에서, 자연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표현 어휘가 도달하지 못하는 대상을 예측하기 위해 언어 검사와 의사소통 의도와 유형, 몸짓 사용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말 늦은 아동을 예측하는 요인은 의사소통 의도와 몸짓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개인의 기질, 환경적 변인으로 기질조화적합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만 5세 언어발달지체유아 125명과 일반유아 125명으로 총 250명이었다.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울산, 부산, 대구, 경북 소재 언어재활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반유아는 울산, 부산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은 만 4세부터 급격하게 발달하는데(박지혜, 김화수, 박정식, 2014), 만 5세가 되면 성인과 같은 언어 체계를 습득하게 된다(Kuder, 2010). 이에 연구대상 연령을 화용언어능력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 5세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을 측정하는 오프라인 설문지 150부와 네이버 폼을 사용한 온라인 설문지 150부를 배포하였다. 연구 자료는 무선적이고 확실적인 응답을 한 것을 제외하고, 언어발달지체유아 125부, 일반유아 125부 총 250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선정 기준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언어발달지체유아

만 5세 언어발달지체유아 집단의 선정 기준은 (1) 현재 언어치료를 받고 있으며, (2) 언어재활사가 실시한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에서 생활연령에 비해 언어연령이 1~2년 이내의 지체를 나타내며, (3) 자폐나 시각·청각 등 감각 및 신체장애가 없는 유아이다.

2) 일반유아

만 5세 일반유아 집단의 선정 기준은 (1) 부모 또는 소속 기관의 교사에 의해 언어 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2) 자폐나 시각·청각 등 감각 및 신체장애가 없는 유아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50)

특성	구분	빈도(%)
----	----	-------

		언어발달지체 유아	일반유아	전체	
성별	남아	75(60.0)	59(47.2)	134(53.6)	
	여아	50(40.0)	66(52.8)	116(46.4)	
	전체	125(100)	125(100)	250(100)	
유아	일반어린이집	22(17.6)	41(32.8)	63(25.2)	
	일반유치원	16(12.8)	43(34.4)	59(23.6)	
	교육 기관	통합어린이집	56(44.8)	24(19.2)	80(32.0)
		통합유치원	29(23.2)	17(13.6)	46(18.4)
	장애전문어린이집	2(1.6)	.	2(0.8)	
	전체	125(100)	125(100)	250(100)	
아버지	20대	.	.	.	
	30대	47(37.6)	60(48.0)	107(42.8)	
	40대	75(60.0)	62(49.6)	137(54.8)	
	50대이상	3(2.4)	3(2.4)	6(2.4)	
	전체	125(100)	125(100)	250(1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13(10.4)	7(5.6)	20(8.0)
		전문대 졸업	31(24.8)	28(22.4)	59(23.6)
		대졸	62(49.6)	78(62.4)	140(56.0)
		대학원 졸업이상	19(15.2)	12(9.6)	31(12.4)
		전체	125(100)	125(100)	250(100)
어머니	20대	5(4.0)	.	5(2.0)	
	30대	65(52.0)	87(69.6)	152(60.08)	
	40대	53(42.4)	38(30.4)	91(36.4)	
	50대 이상	2(1.6)	.	2(0.8)	
	전체	125(100)	125(100)	250(1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6(4.8)	7(5.6)	13(5.2)
		전문대 졸업	37(29.6)	24(19.2)	61(24.4)
		대졸	71(56.8)	73(58.4)	144(57.6)
		대학원 졸업이상	11(8.8)	21(16.8)	32(12.8)
		전체	125(100)	125(100)	250(100)
가구원 소득	180만원 미만	1(0.8)	.	1(0.4)	
	180 ~ 350만원 미만	18(14.4)	24(19.2)	42(16.8)	
	350 ~ 480만원 미만	58(46.4)	32(25.6)	90(36.0)	
	480 ~ 630만원	30(24.0)	35(28.0)	65(26.0)	
	630 ~ 1200만원 미만	12(9.6)	31(24.8)	43(17.2)	
	1200만원 이상	6(4.8)	3(2.4)	9(3.6)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남아가 75명(60.0%), 여아가 50명(40.0%)으로 남아가 더 많았으며, 일반유아에서는 남아가 59명(47.2%), 여아가 66명(52.8%)으로 여아가 더 많았다. 전체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35명(53.6%), 여아는 116명(46.4%)으로 남아가 더 많았다.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통합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가 56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유아에서는 일반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가 43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언어발달지체유아 아버지 연령은 40대가 75명(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유아 아버지 연령도 40대가 62명(49.6%)으로 가장 많았다. 언어발달지체유아 아버지 최종학력은 대졸이 62명(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유아 아버지 최종학력도 대졸이 78명(62.4%)으로 가장 많았다. 언어발달지체유아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65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유아 어머니 연령도 30대가 87명(69.6%)으로 가장 많았다. 언어발달지체유아 어머니 최종학력은 대졸이 71명(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유아 어머니 최종학력도 대졸이 73명(58.4%)으로 가장 많았다. 언어발달지체유아 가구원 소득은 350~480만원 미만이 58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유아 가구원 소득은 480~630만원 미만이 35명(28.0%)으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기질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1981)가 개발한 유아용 기질 척도를 김유정(2014)이 수정·보완한 CBQ-VSF 척도를 사용하였다. CBQ-VSF 척도는 유아의 기질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기질의 세 가지 상위 요인을 중심으로 개발한 도구이다. 기질 척도의 하위요인은 외향기질(12문항), 부정정서기질(12문항), 주의통제기질(12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외향기질이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내는 편이다’, 부정정서기질이 ‘화가 나면 달래기 매우 힘들다’, 주의통제기질이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획해서 준비한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항상 그러함(7점)’, ‘매우 그러함(6점)’, ‘그러함(5점)’, ‘보통(4점)’, ‘가끔 그러함(3점)’, ‘거의 그렇지 않음(2점)’, ‘전혀 그렇지 않음(1점)’의 리커트(Likert) 척도(7점) 방식으로 평정하였다. 요인별 해석은 외향기질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활동 수준과 외부 자극에 대한 유아의 반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정서기질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 상태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의통제기질도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집중과 통제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질 척도는

여러 가지 다른 능력이나 이질적인 속성을 하나의 연구도구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이에 기질에 대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만 산출하였다(황혜정 외, 2019).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향기질 .81, 부정정서기질 .80 주의통제기질 .85로 전반적으로 높았다.

<표 2> 유아 기질 척도 하위요인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외향기질	1, 4, 7, 10, 13R, 16, 19R, 22R, 25, 28, 31R, 34R	12	.81
부정정서기질	2, 5, 8, 11, 14, 17, 20R, 23, 26R, 29R, 32, 35	12	.80
주의통제기질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12	.85

R: 역채점 문항

2) 기질조화적합성

본 연구에서는 기질조화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맥락특유이론(DOTS-R : Ethnotheory, Windle & Lerner, 1986)에 근거하여 서주현(2009)이 개발한 조화적합성 산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질조화적합성 척도는 유아용 기질 척도(CBQ-VSF) 36개 문항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행동적 기대 및 요구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대 및 요구 간 일치되는 정도를 기질조화적합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각 문항에서의 점수는 ‘항상 그러함(7점)’, ‘매우 그러함(6점)’, ‘그러함(5점)’, ‘보통(4점)’, ‘가끔 그러함(3점)’, ‘거의 그렇지 않음(2점)’, ‘전혀 그렇지 않음(1점)’을 나타내는 리커트(Likert) 척도(7점)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질조화적합성의 점수는 어머니 요구 및 기대 점수에서 유아의 기질 점수를 뺀 절댓값으로 원점수를 산출하였다(서주현, 2009).

기질조화적합성의 원점수가 낮을수록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 요구가 일치함을 의미한다. 문항의 원점수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였으며, 기질조화적합성 변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조화적합성이 더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산출한 기질조화적합성의 점수는 절댓값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와 유아의 기질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의 방향성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유아의 기질 수준이 높고 활발한 기질에 대한 어머니 요구도가 낮은 경우와 유아의 활발한 기질 수준이 낮고 활발한 기질에 대

한 어머니의 요구도가 높은 경우 모두에서 기질조화적합성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질조화적합성 점수를 유아의 기질 특성에 대한 어머니 요구의 일치도로 측정하였다.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향조화적합성 .63, 부정정서조화적합성 .71, 주의통제조화적합성 .71이었다.

<표 3> 어머니 요구도 척도 하위요인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외향조화적합성	1, 4, 7, 10, 13R, 16, 19R, 22R, 25, 28, 31R, 34R	12	.63
부정정서조화적합성	2, 5, 8, 11, 14, 17, 20R, 23, 26R, 29R, 32, 35	12	.71
주의통제조화적합성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12	.71

R: 역채점 문항

3) 화용언어능력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오소정 외(2012)의 아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척도를 사용하였다. CPLC는 국내와 국외의 화용 언어검사, 평가도구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선별 및 수정한 도구이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담화 관리능력(11문항),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13문항), 의사소통 의도(13문항), 비언어적 의사소통(10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상관분석 및 구인타당도를 실시하여 하위요인별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5점)', '조금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리커트(Likert) 척도(5점)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화용언어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담화 관리능력 .94,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96, 의사소통 의도 .96, 비언어적 의사소통 .94, 화용언어능력 전체 .9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표 4> 유아 화용언어능력 척도 하위요인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화용언어	문항	문항수	신뢰도
------	----	-----	-----

능력 하위요인	문항의 예	문항 번호		
담화 관리능력	- 아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횟수가 다른 또래들과 비슷하다. - 대화 주제를 갑자기 엉뚱한 내용으로 바꾸지 않는다.	1-11	11	.94
상황· 청자·맥락 에 따른 조절 및 적용	- 대화하는 상대방에 따라 존댓말/반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 역할놀이를 할 때 맡은 역할에 따라 말투나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	12-24	13	.96
의사소통 의도	-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적절하게 질문한다. -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적 절하게 거부표현을 할 수 있다.	25-37	13	.96
비언어적 의사소통	- 필요할 때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 주위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표정을 짓는다.	38-47	10	.94
전체			47	.99

(1) 유아 화용언어능력 하위요인 내용

① 담화 관리능력

담화 관리능력은 대화를 주고받고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며 종결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이다. 담화 관리능력에 대한 하위 문항은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제 시작 및 유지, 눈 맞춤, 번갈아 가며 이야기하기 및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②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은 유아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관련된 언어 표현 능력이다.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대한 하위 문항은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언어의 조절 능력과 청자 및 화자의 비언어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변화를 포함하였다.

③ 의사소통 의도

의사소통 의도는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기능의 다양성을 인지하는 상위 언어능력이다.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하위 문항은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보제공하기, 놀리기, 행동 및 사물 요구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④ 비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얼굴 표정, 목소리, 발성, 제스처 등과 같은 비구어적 표현기술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하위 문항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화 시 상대방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신체적 접촉 시도하기와 시·공간적 조절능력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 조사

예비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설문지의 수행 시간 및 문항 내용 이해의 용이성,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울산 소재의 언어재활기관 재원 중이며 PRES(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검사)에서 1~2년 이내의 지체를 보이는 만 5세의 언어발달지체유아 10명이었다. 그리고 일반유아는 울산에 있는 일반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만 5세 유아 10명이었다.

설문지는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네이버 온라인 폼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회수된 자료는 도구의 적절성 검증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측정 도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도구의 수정 없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20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만 5세의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이다.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울산, 부산, 대구, 경북 지역 언어재활기관에서 현재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유아들로 PRES(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검사)에서 생활연령에 비해 언어연령이 1~2년 이내의 지체를 나타내는 150명이었다. 일반유아는 울산, 부산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150명이었다.

본 조사는 네이버 폼 온라인 설문지 180부와 배부용 설문지 120부로 총 300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확실적이고 무선적인 응답을 한 설문지는 제외하여 언어발달지체유아 125부, 일반유아 125부를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자료는 SPSS 25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의 내적 합치도를 구하기 위해 각 변인별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차이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 분석을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째, 기질과 기질조화적합성이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 능력 차이

1)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차이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차이에 대한 결과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5> 집단 간 기질 하위요인별 차이

하위요인	언어발달지체유아($n=125$)		일반유아($n=125$)		t
	M	SD	M	SD	
외향기질	3.66	.82	4.04	.92	-3.48**
부정정서기질	3.52	.72	3.51	.79	.16
주의통제기질	4.52	.91	4.65	.81	-1.18

** $p<.01$,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주의통제기질($M=4.52$, $SD=.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향기질($M=3.66$, $SD=.82$), 부정정서기질($M=3.51$, $SD=.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유아에서도 주의통제기질($M=4.65$, $SD=.8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향기질($M=4.04$, $SD=.92$), 부정정서기질($M=3.52$, $SD=.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기질에 대한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외향기질($t=-3.48$, $p<.01$)에서 언어발달지체유아가 일반유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부정정서기질과 주의통제기질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2)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조화적합성 차이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조화적합성 차이에 대한 결과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6> 집단 간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별 차이

하위요인	언어발달지체유아(<i>n</i> =125)		일반유아(<i>n</i> =125)		<i>t</i>
	<i>M</i>	<i>SD</i>	<i>M</i>	<i>SD</i>	
외향조화적합성	4.41	.60	4.59	.52	-2.58*
부정정서조화적합성	4.46	.56	4.35	.75	1.33
주의통제조화적합성	4.71	.60	4.84	.61	-1.67

**p*<.05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주의통제조화적합성(*M*=4.71, *SD*=.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정서조화적합성(*M*=4.46, *SD*=.56), 외향조화적합성(*M*=4.41, *SD*=.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유아에서는 주의통제조화적합성(*M*=4.84, *SD*=.6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향조화적합성(*M*=4.59, *SD*=.52), 부정정서조화적합성(*M*=4.35, *SD*=.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기질조화적합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외향조화적합성에서(*t*=-2.58, *p*<.05)에서 언어발달지체유아가 일반유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부정정서조화적합성과 주의통제조화적합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3)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화용언어능력 차이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화용언어능력 차이에 대한 결과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7> 집단 간 화용언어능력 하위요인별 차이

화용언어능력 하위요인	언어발달지체유아(<i>n</i> =125)		일반유아(<i>n</i> =125)		<i>t</i>
	<i>M</i>	<i>SD</i>	<i>M</i>	<i>SD</i>	
담화 관리능력	3.13	.70	3.99	.56	-10.75***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2.64	.53	4.01	.62	-18.86***
의사소통 의도	2.96	.63	4.03	.61	-13.73***
비언어적 의사소통	2.96	.51	4.16	.61	-16.75***

화용언어능력 전체	2.92	.51	4.05	.55	-16.69***
-----------	------	-----	------	-----	-----------

*** $p < .001$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담화 관리능력($M=3.13$, $SD=.7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의도($M=2.96$, $SD=.63$)와 비언어적 의사소통($M=2.96$, $SD=.51$)은 평균이 같았으며, 화용언어능력 전체($M=2.92$, $SD=.51$),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M=2.64$, $SD=.5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유아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M=4.16$, $SD=.5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용언어능력 전체($M=4.05$, $SD=.55$), 의사소통 의도($M=4.03$, $SD=.61$),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M=4.01$, $SD=.62$), 담화 관리능력($M=3.99$, $SD=.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담화 관리능력($t=-10.75$, $p<.001$),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t=-18.86$, $p<.001$), 의사소통 의도($t=-13.73$, $p<.001$), 비언어적 의사소통($t=-16.75$, $p<.001$), 화용언어능력 전체($t=16.69$, $p<.001$)에서 언어발달지체유아가 일반유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2.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

1)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N=125)

언어발달지체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외향 기질	부정정서 기질	주의통제 기질	외향조화 적합성	부정정서 조화적합성	주의통제 조화적합성	담화 관리능력	상황·청자· 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 능력전체
외향기질	1										
부정정서기질	.08	1									
주의통제기질	-.01	.12	1								
외향조화적합성	.11	.48**	-.03	1							
부정정서 조화적합성	.08	.68**	-.20*	.37**	1						
주의통제 조화적합성	-.02	.54**	-.04	.34**	.46**	1					
담화 관리능력	-.12	-.05	.19*	.12	-.04	.14	1				
상황·청자· 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04	.05	.13	.27**	.04	.19*	.66**	1			
의사소통 의도	.02	-.13	.18*	.13	-.05	.07	.77**	.79**	1		
비언어적 의사소통	-.12	.06	.04	.20*	.02	.13	.43**	.75**	.60**	1	
화용언어능력 전체	-.07	-.03	.16	.20*	-.01	0.15	.85**	.91**	.92**	.78**	1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기질과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을 살펴보면, 주의통제기질과 담화 관리능력 ($r=.19, p<.05$), 의사소통 의도($r=.18, p<.05$)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능력 전체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기질조화적합성과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을 살펴보면, 외향조화적합성과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r=.27, p<.01$), 비언어적 의사소통($r=.20, p<.05$), 의사소통능력의 전체($r=.20, p<.05$)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주의통제적합성과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r=.19, p<.05$)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정정서조화적합성과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은 화용언어능력 하위요인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기질과 기질조화적합성 간 상관을 살펴보면, 부정정서기질과 외향조화적합성 ($r=.48, p<.01$), 부정정서조화적합성($r=.68, p<.01$), 주의통제조화적합성($r=.54, p<.01$)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주의통제기질과 부정정서조화적합성($r=-.20, p<.05$)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외향기질과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2)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N=125)

일반유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외향 기질	부정정서 기질	주의통제 기질	외향조화 적합성	부정정서 조화적합성	주의통제 조화적합성	담화 관리능력	상황·청자· 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 능력전체
외향기질	1										
부정정서기질	-.12	1									
주의통제기질	.07	.01	1								
외향조화적합성	-.28**	.13	.10	1							
부정정서 조화적합성	.18*	.16	-.17	.10	1						
주의통제 조화적합성	.008	.08	.46**	.32**	.08	1					
담화 관리능력	-.06	.08	.26**	-.14	-.01	-.18*	1				
상황·청자· 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09	-.08	.19**	-.16	-.02	-.15	.86**	1			
의사소통 의도	.03	-.004	.27**	-.18*	-.04	-.15	.74**	.80**	1		
비언어적 의사소통	.01	-.01	.27**	-.16	-.07	-.16	.78**	.78**	.83**	1	
화용언어 능력전체	-.03	.04	.27**	-.17	-.04	-.17	.91**	.93**	.92**	.92**	1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기질과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을 살펴보면, 주의통제기질과 담화 관리능력($r=.26, p<.01$),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r=.19, p<.05$), 의사소통 의도($r=.27, p<.01$), 비언어적 의사소통($r=.27, p<.01$), 화용언어능력의 전체($r=.27, p<.01$)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외향기질과 부정정서기질은 화용언어능력 하위요인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기질조화적합성과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을 살펴보면, 외향조화적합성과 의사소통 의도($r=-.18, p<.05$)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주의통제조화적합성과 담화 관리능력($r=-.18, p<.05$)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정정서조화적합성은 화용언어능력 하위요인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기질과 기질조화적합성 간 상관을 살펴보면, 외향기질과 외향조화적합성($r=-.28, p<.01$)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부정정서조화적합성($r=.18, p<.05$) 간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주의통제기질과 주의통제조화적합성($r=.21, p<.05$)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3.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유아의 기질 변인을 투입하여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을 예측하였고, 모형 2에서는 기질조화적합성 변인을 투입하여 화용언어능력 하위요인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의 투입순서는 변인의 개념적 선행에 근거하였다. 즉, 기질을 선천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1단계에 투입하였고, 환경적 변인인 어머니-유아 기질조화적합성을 2단계에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종속변수가 정규분포에 있는지 표준화된 잔차의 히스토그램과 표준화된 잔차의 P-P 도표로 정규성 검정하였다. 예측 변수들 간 상관성이 높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선행하여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기준으로 진단하였다. VIF는 일반적으로 10을 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데(김계수, 2004), 본 연구에서는 VIF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담화 관리능

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담화 관리능력에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담화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담화 관리능력		모형1			모형2		
독립변수		B	β	t	B	β	t
언어발달 지체유아 (n=125)	외향기질	-.10	-.12	-1.38	-.10	-.12	-1.36
	부정정서기질	-.02	-.02	-.19	-.09	-.10	-.71
	주의통제기질	.16	.19	2.13*	.17	.20	2.08*
	외향조화적합성				.20	.17	1.73
	부정정서조화적합성				-.14	-.15	-1.19
	주의통제조화적합성				.23	.20	1.86
	R^2		.052			.113	
	$adjR^2$.028			.068	
F		2.20*			2.50*		
일반유아 (n=125)	외향기질	-.05	-.07	-.83	-.08	-.14	-1.56
	부정정서기질	.06	.07	.81	-.09	-.10	-.71
	주의통제기질	.17	.27	3.07**	.29	.48	5.02***
	외향조화적합성				-.14	-.13	-1.43
	부정정서조화적합성				.11	.11	1.30
	주의통제조화적합성				-.35	-.37	-3.81***
	R^2		.081			.225	
	$adjR^2$.058			.185	
F		3.57*			5.70 ***		

* $p < .05$, ** $p < .01$, *** $p < .001$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기질 하위요인을 투입한 1단계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20$, $p < .05$), 담화 관리능력의 5.2%($R^2=.052$, $adjR^2=.028$)를 설명하였다. 이는 기질이 담화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기질과 함께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을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50$, $p < .05$), 1단계에 비해 변량의 설명력이 6.1%($F=2.71$, $p < .05$) 증가하여 담화 관리능력

의 11.3%($R^2=.113$, $adjR^2=.068$)를 설명하였다. 담화 관리능력에 대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2단계 회귀모형에서 주의통제기질($\beta=.20$, $p<.05$)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에서는 기질 하위요인을 투입한 1단계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57$, $p<.05$), 담화 관리능력의 8.1%($R^2=.081$, $adjR^2=.058$)를 설명하였다. 이는 기질이 담화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기질과 함께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을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70$, $p<.001$), 1단계에 비해 변량의 설명력이 14.3%($F=7.27$, $p<.001$) 증가하여 담화 관리능력의 22.5%($R^2=.225$, $adjR^2=.185$)를 설명하였다. 담화 관리능력에 대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2단계 회귀모형에서 주의통제기질($\beta=.48$, $p<.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의통제조화적합성($\beta=-.3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언어발달 지체유아 (n=125)	독립변수						
	외향기질	-.03	-.05	-.50	-.03	-.05	-.59
	부정정서기질	.05	.07	.77	-.07	-.10	-.70
	주의통제기질	.09	.14	1.54	.08	.13	1.34
	외향조화적합성				.26	.30	2.97**
	부정정서조화적합성				-.08	-.11	-.85
	주의통제조화적합성				.16	.19	1.78
	R^2		.023			.124	
	$adjR^2$		-.001			.079	
	F		.96			2.78*	

	외향기질	-.06	-.09	-1.01	-.11	-.16	-1.74
	부정정서기질	.06	.07	.77	.08	.09	1.00
	주의통제기질	.14	.20	2.21*	.25	.36	3.62***
일반유아 (<i>n</i> =125)	외향조화적합성				-.20	-.17	-1.77
	부정정서조화적합성				.10	.09	1.03
	주의통제조화적합성				-.28	-.27	-2.66**
	R^2		.051			.153	
	$adjR^2$.027			.110	
	F		2.16			3.56 **	

* $p < .05$, ** $p < .01$, *** $p < .001$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기질 하위요인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질이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기질과 함께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을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78$, $p < .05$),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의 12.4%($R^2=.124$, $adjR^2=.079$)를 설명하였다.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대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2단계 회귀모형에서 외향조화적합성($\beta=.30$, $p < .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에서는 기질 하위요인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질이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기질과 함께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을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56$, $p < .001$),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15.3%($R^2=.153$, $adjR^2=.110$)를 설명하였다.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대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2단계 회귀모형에서 주의통제기질($\beta=.36$, $p < .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의통제조화적합성($\beta=-.27$,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의사소통 의도에 미치는 영향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에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의사소통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의도		모형1			모형2		
독립변수		B	β	<i>t</i>	B	β	<i>t</i>
언어발달 지체유아 (<i>n</i> =125)	외향기질	.02	.03	.30	.02	.03	.29
	부정정서기질	-.09	-.11	-1.22	-.22	-.27	-1.90
	주의통제기질	.13	.16	1.83	.11	.14	1.48
	외향조화적합성				.23	.22	2.15*
	부정정서조화적합성				-.04	-.04	-.33
	주의통제조화적합성				.16	.16	1.47
	R^2		.043			.101	
$adjR^2$.020			.055		
F		1.83			2.21*		
일반유아 (<i>n</i> =125)	외향기질	.008	.01	.14	-.03	-.05	-.54
	부정정서기질	-.005	-.006	-.06	.01	.02	.20
	주의통제기질	.18	.27	3.07**	.30	.45	4.63***
	외향조화적합성				-.17	-.14	-1.56
	부정정서조화적합성				.09	.09	.95
	주의통제조화적합성				-.32	-.32	-3.19**
	R^2		.073			.190	
$adjR^2$.050			.149		
F		3.18*			4.61***		

* $p < .05$, ** $p < .01$, *** $p < .001$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기질 하위요인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질이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기질과 함께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을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21$, $p < .05$), 의사소통 의도를 10.1%($R^2=.101$, $adjR^2=.055$) 설명하였다.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2단계 회귀모형에서 외향조화적합성($\beta=.22$, $p < .05$)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에서는 기질 하위요인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18$, $p < .05$), 의사소통 의도의 8.1%($R^2=.081$, $adjR^2=.058$)를 설명하였다. 이는 기질이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기질과 함께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을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61$, $p < .001$), 1

단계에 비해 변량의 설명력이 11.7%($F=5.68, p<.01$) 증가하여 의사소통 의도의 19%($R^2=.190, adjR^2=.149$)를 설명하였다.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2단계 회귀모형에서 주의통제기질($\beta=.45, p<.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의통제조화적합성($\beta=-.32,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비언어적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비언어적 의사소통		모형1			모형2		
독립변수		B	β	t	B	β	t
언어발달 지체유아 (n=125)	외향기질	-.08	-.12	-1.36	-.08	-.13	-1.45
	부정정서기질	.05	.07	.81	-.03	-.04	-.27
	주의통제기질	.03	.05	.53	.03	.04	.42
	외향조화적합성				.20	.23	2.24*
	부정정서조화적합성				-.06	-.09	-.64
	주의통제조화적합성				.09	.11	1.03
	R^2		.020			.074	
$adjR^2$		-.004			.027		
F		.83			1.58		
일반유아 (n=125)	외향기질	-.003	-.005	-.05	-.04	-.05	-.58
	부정정서기질	-.007	-.008	-.09	.02	.02	.21
	주의통제기질	.18	.27	3.05**	.30	.44	4.56***
	외향조화적합성				-.14	-.12	-1.27
	부정정서조화적합성				.06	.05	.59
	주의통제조화적합성				-.33	-.33	-3.29**
	R^2		.071			.185	
$adjR^2$.048			.143		

F	3.10*	4.46***
* $p<.05$, ** $p<.01$, *** $p<.001$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기질 하위요인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질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기질과 함께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을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언어발달지체유아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에서는 기질 하위요인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10$, $p<.05$),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7.1%($R^2=.071$, $adjR^2=.048$)를 설명하였다. 이는 기질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기질과 함께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을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61$, $p<.001$), 1단계에 비해 변량의 설명력이 11.3%($F=5.47$, $p<.01$) 증가하여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18.5%($R^2=.185$, $adjR^2=.143$)를 설명하였다.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2단계 회귀모형에서 주의통제기질($\beta=.44$, $p<.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의통제조화적합성($\beta=-.33$,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

화용언어능력 전체		모형1			모형2		
독립변수		B	β	t	B	β	t
언어발달 지체유아 ($n=125$)	외향기질	.05	.08	.83	.05	.08	.90
	부정정서기질	-.002	-.003	-.03	-.10	-.15	-1.08
	주의통제기질	.10	.06	1.80	.10	.15	1.61
	외향조화적합성				.22	.26	2.59*
	부정정서조화적합성				-.08	-.12	-.89
	주의통제조화적합성				.16	.19	1.81

	R^2		.032			.117	
	$adjR^2$.008			.073	
	F		1.32			2.62*	
일반유아 ($n=125$)	외향기질	-.03	-.04	-.48	-.07	-.11	-1.22
	부정정서기질	.03	.03	.38	.04	.06	.68
	주의통제기질	.17	.27	3.09**	.28	.47	4.90***
	외향조화적합성				-.16	-.15	-1.67
	부정정서조화적합성				.09	.09	1.06
	주의통제조화적합성				-.32	-.35	-3.55**
		R^2		.075			.214
	$adjR^2$.052			.174	
	F		3.29*			5.34***	

* $p<.05$, ** $p<.01$, *** $p<.001$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기질 하위요인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질이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기질과 함께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을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62$, $p<.05$), 화용언어능력 전체의 11.7%($R^2=.117$, $adjR^2=.073$)를 설명하였다.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대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2단계 회귀모형에서 외향조화적합성($\beta=.26$, $p<.05$)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에서는 기질 하위요인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29$, $p<.05$), 화용언어능력 전체의 7.5%($R^2=.075$, $adjR^2=.052$)를 설명하였다. 이는 기질 이화용언어능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기질과 함께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을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34$, $p<.001$), 1단계에 비해 변량의 설명력이 13.8%($F=6.91$, $p<.001$) 증가하여 화용언어능력 전체의 21.4%($R^2=.214$, $adjR^2=.149$)를 설명하였다.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대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2단계 회귀모형에서 주의통제기질($\beta=.47$, $p<.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의통제조화적합성($\beta=-.35$,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의 차이, 집단별 변인 간 상관, 집단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만 5세 언어발달지체유아 125명과 일반유아 125명으로 총 250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하위요인별 일반적 경향을 비교해 본 결과,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주의통제기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향기질, 부정정서기질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일반유아의 경우에도 주의통제기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향기질, 부정정서기질 순으로 높았다. 즉, 두 집단 간 기질 하위요인의 일반적 경향이나 특성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하위요인별 집단 간 세부 차이를 살펴보면,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아보다 부정정서기질이 높고 외향기질과 주의통제기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비교한 정경희(2017)의 연구에서 5세 단순언어장애유아는 기질 중 리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아는 기질 중 적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에 기질의 하위요인들의 일반적 경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는 달리, 박영선(2015)의 연구에서는 말더듬아동은 기질 중 부정적 정서, 외향성, 의도적 통제의 순서로, 일반아동은 의도적 통제, 부정적 정서, 외향성의 순서로 평균점이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한 기질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두 집단 간 비교 연구의 상이한 결과는, 언어발달지체유아를 비롯한 언어장애유아들의 다양한 기질적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언어장애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하위요인별 유의한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외향기질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가 일반유아보다 유의하게 낮은 반면, 부정정서기질과 주의통제기질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이 의사소통능력의 기반이 되는 언어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Rieser-Danner(2003),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언어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김영실(2013), 양수정(2007), 조유나(2010), 언어발달지체유아는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말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말수가 적고 수줍어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언어능력발달이 늦어진다고 설명한 조명숙(2005)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아보다 의사소통 빈도가 낮고, 언어기능이 제한적이며(조미라, 이윤경, 2010), 일상의 대화 상황에서 구어적 반응이 낮고, 지시사항 수행력도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Bishop et al., 2000),

집단별 기질 차이는 유아가 중재에 반응하는 양상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재 방안을 계획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조화적합성에 대한 하위요인별 일반적 경향을 비교해 본 결과,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정서조화적합성, 외향조화적합성 순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일반유아의 경우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은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는 외향조화적합성, 부정정서조화적합성 순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즉 두 집단에서 기질조화적합성의 일반적 경향은 부분적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집단 간 세부 차이를 비교해 보면,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아보다 부정정서조화적합성은 높고, 외향조화적합성과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은 낮았다.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의 기질조화적합성의 하위요인들 중 주의집중 및 적응성과 관련된 조화적합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한 연구(김연주, 2018; 모미라, 2019; 이시자, 2013; 정지연, 2002)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유아기는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력이 낮으며, 어머니도 유아의 주의집중력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편이다(윤희나, 2016; 정향미, 안민순, 2009). 주의통제기질이 높은 유아에 대해 어머니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낮추거나 자녀의 특성에 맞추는 등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주의통제기질이 낮은 유아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주의통제기질의 향상이나 개선을 인위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자녀의 주의통제기질의 특성에 맞추어 자신의 기대나 요구를 조절한다. 이는 유아의 주의통제기질과 어머니의 요구도 간 일치도를 뜻하는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진과 김정민(1991)은 동일한 기질 특성을 지닌 유아라도 각기 다른 요구를 받는 주변 환경에 따라 조화적합성이 서로 다르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집단별 기질조화적합성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조화적합성 하위요인별 유의한 차이를 비교해 보면, 언어발달지체유아가 일반유아에 비해 외향조화적합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와는 달리, 부정정서조화적합성과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영희(1993)는 조화적합성 모델에 대한 설명에서, 유아의 기질 특성은 부모의 양육 태도보다는 어머니의 기대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도와 보다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녀의 기질 특성은 타고난 상태 자체보다는 어머니가 그 특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통하여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외향기질적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나 기대의 일치도를 뜻하는 외향조화적합성이 일반유아 어머니의 외향조화적합성보다 낮게 나타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지체된 언어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언어에 주의 깊게 반응해 주는 성인의 상호작용에 보다 강하게 의존한다(Gleason, 1977). 이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소통 기회와 반응 빈도가 낮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언어 학습 환경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Cardoso Martin & Mervis, 1985). 따라서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언어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 교사 및 주변 성인들의 보다 주의깊은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말이 늦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 특성을 분석한 연구(하은빈, 2012)에서는 말이 늦은 아동-어머니 간의 의사소통의 부적절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실패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말이 늦은 아동의 어머니는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질문은 적고 피드백이 많았으며,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즐거움과 언어적 칭찬이 유의하게 적었다. 그리고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어머니는 일반유아의 어머니들과는 다른 의사소통 행동을 보이며, 자녀를 대화에 참여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나 기대를 보다 강하게 표현한다고 보고하였다(Hammer et al., 2001).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어머니는 일반유아의 어머니에 비해 외향조화적합성이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어머니가 일반유아의 어머니보다 유아의 외향기질에 대한 요구가 유의하게 많거나 적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특성 및 어머니의 태도를 함께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외향기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의 기질 자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유아-어머니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개선해야 한다. 어머니가 자녀의 외향기질 특성에 대한 자신의 기대나 요구를 조절하고 맞추는 등 어머니의 (일반유아의 어머니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외향조화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상호작용 전략과 자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개선하려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별 경향을 비교해 본 결과,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담화 관리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평균 점수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화용언어능력 전체,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순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일반유아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화용언어능력 전체, 의사소통 의도,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담화 관리능력 순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즉 두 집단 간에는 화용언어능력의 하위 요인별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소정, 이은주, 김용태(2012)의 연구에서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일반아동들의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 간 수행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장애아동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담화관리 능력의 순서로 유의하게 점수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들 중 담화 관리능력과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은 유의하게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는 달리,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화용언어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김현희, 2018; 서경희, 2010; 송승하 외, 2017; 오소정 외, 2012; 이민희, 임동선, 2014)들에서는 본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학령기 아동과 유아들의 연령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용언어능력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학령기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발달하는 영역인데(김영태,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대상의 연구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며, 언어발달지체유아 및 기타 장애를 지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는 일반유아들과의 비교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들 간의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들의 세부적인 차이를 관찰하고 검증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와 세부 집단으로 구성된 유·아동들의 화용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서 살펴본 기질, 기질조화적합성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확인한 두 집단 간의 변인 및 하위요인들의 차이와 구체적인 특성은 유아들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의 개발과 중재 전략에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후속연구에도 유효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화용언어능력 하위요인별 유의미한 차이를 비교해 보면,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아에 비해 담화 관리능력,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리고 화용언어능력 전체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Bishop et al., 2000; Hewitt, Hammer, Yont, & Tomblin, 2005; Klee, Stokes, Wong, Fletcher, & Gavin, 2004; Paul, Hernandez, Taylor, & Johnson,

1996)에서 언어발달지체유아가 또래의 일반유아보다 낮은 표현어휘능력과 어휘 다양성 부족, 일상의 대화 상황에서 낮은 구어적 반응성 등을 나타내고, 전반적인 화용능력에서도 일반유아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고 보고한 내용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화용언어능력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이민희, 임동선, 2014; 한승희, 2015)에서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어휘발달지체아동, 다문화가정아동, 언어장애아동 등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아동화용언어 체크리스트(CPCL) 총점 및 하위 영역별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오소정 외(2012)의 연구에서도 일반아동에 비해 언어지체, 자폐범주성장애, 지적장애, 유창성 장애 등의 언어장애군 아동은 담화 관리능력, 상황에서의 적용능력, 의사소통 의도, 화용언어능력 총점 등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도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dams와 Gathercole(1995)에 의하면,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지체된 언어능력이 문장 처리 과정에 영향을 주어 의미, 구문, 형태, 화용 등 다양한 언어 영역에서 일반유아보다 발달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아와 동일한 순서로 언어를 습득하지만 습득 속도에서 유의한 편차가 나타났다(Mogtgomery, 2003). 이들은 평균 발화 길이가 일반유아보다 대부분 짧고 단순하며,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제시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단서를 활용하거나 언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을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같은 취약한 언어특성으로 인해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은 일반유아에 비해 유의하게 떨어지는 동시에 그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준다(박경애, 김영태, 2001).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화용언어능력은 유아의 전반적인 언어 발달 및 인지 사회적 기능을 예측하도록 돕는 핵심 능력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김영태, 2014).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화용언어능력의 발달 정도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 왔다(김은향, 2020; 오소정, 2019; 이은주, 김영태, 오소정, 2019; 오현미, 2020; 이혜인, 2018; 전해인, 2016; 홍은지, 2021). 이에 비해 언어발달지체유아 및 기타 장애를 지닌 유아들의 화용언어능력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정경희, 2017; 정은주, 2018; 조미라, 이윤경, 2010).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와 같은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검증하고, 아울러 기질, 기질조화적합성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을 위한 치료 현장에서 화용언어능력의 발달을 돕는 접근 방법이나 중재 전략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 발달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와 교육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2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첫째,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을 살펴보면, 주의통제기질과 담화 관리능력, 의사소통 의도 간 정적 상관, 외향조화적합성과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능력 전체 간 정적 상관, 주의통제조화적합성과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간 정적 상관, 부정정서기질과 외향조화적합성, 부정정서조화적합성, 주의통제조화적합성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주의통제기질과 부정정서조화적합성 간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기질의 하위요인 중 주의통제기질은 계획하고, 오류를 찾아내고, 우세하지 않은 반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집행적 주의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언어의 수용과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Prior et al., 2011),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언어결함을 지닌 유아의 언어능력과 주의력, 지속성, 적응성 간의 상관을 규명하였다(박영선, 2015; 이은주, 2005; 정경희, 2017). 장애유아들의 주의력 또는 주의통제기질과 언어능력 간의 상관을 설명하거나 입증한 이상의 연구들은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주의통제기질과 화용언어능력 간의 상관을 입증한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한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고위험군 아동의 기질, 기질적합성 및 문제행동 간의 상관을 분석한 연구(박해송, 최은주, 2005)에서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 맥락의 상호작용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장애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과 전반적, 발달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세부 특성 이해와 중재 개발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을 살펴보면, 주의통제기질과 담화 관리능력,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능력 전체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외향조화적합성과 의사소통 의도 간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주의통제조화적합성과 담화 관리능력 간에도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외향기질과 외향조화적합성 간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부정정서조화적합성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주의통제기질과 주의통제조화적합성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희경과 김근영(2015)은 일반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 중 주의력 기질이 표현언어 발달과 수용언어 발달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Salley 외(2013)는 언어발달이 빠른 유아가 주어진 과제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집중력과 언어능력의 상관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도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일반유아의 기질 하위요인 중 외향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 기대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외향기질에 대해 다소 불만족한 상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만족, 불일치성을 해소하면서 유아와 어머니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에 나타난 집단 별 상관 차이 및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기질 중 주의통제기질과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지만, 차이의 정도와 방향성은 부분적으로 상이하였다. 마찬가지로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기질조화적합성 중 외향조화적합성은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상관의 방향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요구 수준을 뜻하는 기질조화적합성이 일치할수록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이 높은 반면, 일반유아의 경우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와의 요구 수준이 일치하지 않을수록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을 화용언어능력의 발달,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에 방법론적, 전략적 차이를 두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유아들의 기질 및 화용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서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dams(1990)는 아이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 수준 간의 조화는 언어발달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이의 특성과 환경 요구 수준이 잘 맞지 않으면 부정적인 언어발달을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Conture et al.(2013)에서는 기질조화적합성은 유아의 기질과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Buss와 Plomin(1986)은 유아의 활동 수준은 환경의 영향에 대해 민감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중재행동을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Newland와 Crnic(2016)은 부모-유아의 조화적합성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질 특성은 외향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유아의 화용언어능력과 외향조화적합성과의 상관을 입증한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활동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어머니의 기대 및 요구는 활동수준이 더 낮아지기를 바라는 편이며, 이러한 어머니의 기대와 요구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성을 가진다.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수준에 대한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들(박재윤, 2013; 백은주, 1996; 유민아, 2015; 이주연, 이사라, 2018; 최미경, 2010; 장유진, 이강이, 2011)은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을 하위요인별로 탐색함으로써 언어발달지체유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점

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인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언어발달지체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지닌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문제 3에서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담화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에서 공통으로 주의통제기질이 담화 관리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유아에서는 주의통제조화적합성도 담화 관리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에 공통적으로 주의통제기질이 담화 관리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해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화용언어능력 중 담화 관리능력은 대화 차례나 주제를 조정하고 대화에서의 의사소통 실패를 해결하고 수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아는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 대화의 전체 문맥과 상황 그리고 대화에서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주제에 맞게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Paul, 2007; 오소정 외, 2012). 이처럼 대화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은 주의통제기질과도 유의한 상관을 지닌다.

주의통제기질은 특정 활동을 계획하고, 상황에서 오류를 찾아내며,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억제하는 집행능력을 의미하므로(Rothbart & Bates, 1998), 대화를 지속하고 대화 주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담화 관리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질인 동시에 주의통제기질을 통해 담화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추론이 본 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입증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담화 관리능력에 주의통제기질이 미치는 영향이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모두에서 함께 확인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문제 2의 결과를 통하여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주의통제기질은 담화 관리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희경과 김근영(2015)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주의력기질이 표현언어 및 수용언어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언어발달이 빠른 유아들은 주의력 수준도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여(Paul & James, 1990; Salley et al., 2013)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담화 관리능력 발달을 공통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의통제기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각 집단에 적절한 중재 방안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은 일반유아에서만 담화 관리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의 결과를 통해서 일반유아의 담화 관리능력과 주의통제조화적합성 간 부적 상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의통제기질이

높은 유아에게는 주의통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주의통제기질이 낮은 유아에게는 주의통제를 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주의통제기질이 높은 유아가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고, 집중할 때 어머니는 자녀에게 주의력을 요구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반대로 주의통제기질이 낮은 유아가 대화의 차례를 지키지 못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는 자녀에게 주의력을 요구하고, 대화의 조절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이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어머니 간 원만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것은 일반유아와 어머니의 경우보다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외향조화적합성만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달리, 일반유아에서는 주의통제기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은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 연구문제 2의 결과를 통해 외향조화적합성과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과 간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나 서로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언어발달지체유아는 타인과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제한적이고,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을 느끼며(김영태, 2002), 낮은 구어적 반응성(Bishop, Chan, Adams, Hartley, & Weir, 2000), 낮은 의사소통 빈도, 지시사항에서 낮은 수행력 등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조미라, 이윤경 2010). 이러한 보고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따르면,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외향조화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접근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외향조화적합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발달지체유아가 역할놀이 상황에서 다양한 말투와 목소리로 표현하고, 자신의 역할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어머니는 유아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이들의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여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이와 상반되는 역할놀이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인정하고 반응하는 포용적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어머니 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유아는 이러한 관계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이루고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반유아의 경우 주의통제기질이 높은 유아가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이 높았다. 이는 본 연구문제 2의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일반유아는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과 주의통제기질 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은 상황에 따라 대상과 대화 내용을 조절하는 능력과 대상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농담이나 말장난의 핵심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Paul, 2007)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취해야 할 때 필요한 주의통제기질(Rothbart & Bates 2006)과 밀접하게 연관 됨을 알 수 있다.

Luria(1969)는 유아의 언어, 사고 및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언어가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며, 특히 유아가 소리 내어 말할 때 자신의 행동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의통제기질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한 행동 통제 과정에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유아에서는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이 높은 유아의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이 낮았다. 주의통제적합성이 낮다는 것은 일반유아의 어머니가 유아의 주의통제기질에 대해 상반되는 요구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유아의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가 주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상황과 맥락에서 벗어난 대화를 하거나, 대상에 따라 존댓말이나 반말, 농담이나 말장난 등을 바람직하게 조절·활용하지 못할 때, 어머니는 유아에게 높은 주의력을 요구하고, 유아가 스스로 언어를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상호작용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유아가 주의를 기울여 상황을 파악하고 맥락에 따라 대화를 유지할 때에는 유아에게 높은 주의력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는 자녀들의 상황이나 특성, 환경적 맥락에 따라 주의력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수준을 상이하게 조절하고 발휘함으로써 자녀와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외향조화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어머니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며, 일반유아의 경우 주의통제기질을 높이고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을 낮추기 위한 어머니의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의사소통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외향조화적합성만 의사소통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유아에서는 의사소통 의도에 주의통제기질이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일반유아보다 의사소통 의도를 소극적으로 표현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상대방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과제에서는 낮은 의사소통 의도를 표출한다고 보고하였다(Paul & Shiffer, 1991). 이와 유사하게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어머니도 일반유아의 어머니에 비해 의사소통 의도를 나타내는 빈도가 낮았다고 설명하였다(김은경, 2003).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와 외향조화적합성 간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Bloom(1996)에 따르면 언어장애를 지니거나 평소에 말을 자주 하지 않는 유아의 자발적인 언어표현에 대해 성인이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지적하며, 이를 통해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유아의 외향조화적합성과 의사소통 의도 간의 영향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거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려 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자녀가 타인이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요구와 기대를 표출하기 보다는 자녀의 외향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는 태도가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하고 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어머니 간의 외향조화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재 방안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발달지체유아와는 달리, 일반유아의 경우에는 주의통제기질이 의사소통 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의도는 사물이나 상황에 관련된 간접적인 지적이거나 대화를 통해, 화자의 원래 의도인 특정 행동에 대한 요구를 즉시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기술을 지칭한다(이승복, 1994). 예를 들면 성인이 유아에게 ‘덥지 않니’라고 얘기하면 바로 화자의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고 에어컨을 켤 수 있는 능력, 또는 ‘어머니 계시니’라고 얘기하면 전화를 어머니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유아들이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닌, 이 같은 은유적, 간접적 서술을 통해 숨겨진 의도를 해석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주의통제기질이 요구되며, 그중에서도 인지적·행동적 반응을 조절하는 주의통제기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Rothbart & Bates, 2006).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에서도 일반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는 주의통제기질과 정적인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일반유아의 경우 의사소통 의도를 높이기 위해 주의통제기질을 높이는 접근이나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이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일반유아에서는 의사소통 의도가 높은 데 반해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은 낮았다. 주의

통제적합성이 낮다는 것은 일반유아의 어머니가 유아의 주의통제기질에 대해 상반되는 요구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일반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면, 유아가 주의력이 낮아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할 때, 타인에게 행동을 요구하지 못할 때,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행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녀의 주의통제기질을 높이기 위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의도는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외향조화적합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며, 일반유아의 경우 주의통제기질을 높이고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을 낮추기 위한 어머니의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일반유아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주의통제기질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회 인지적 발달과 연관성을 가진다.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 바람, 의견 또는 인식을 말 이외의 다른 방법인 제스처, 눈 맞춤, 얼굴 표정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최영희, 1993). 이때, 타인 혹은 제3자의 사건 혹은 사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혹은 애정적 감정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할 수 다(Mundy & Willoughby, 1996).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과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적 전략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그러나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은 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비언어적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Ellis et al., 1996). 따라서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보다 그들이 보이는 언어적 특성이 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Feldman와 Allen(1978)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유아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적 문제 상황이나 행동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며 개인의 감각수단(시각적, 신체적, 준 언어적)과 의도성에 따라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유아가 경험하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았다. 그래서 유아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이들이 경험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이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박성연(2007)과 Wyle(1997)의 연구는 기질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도 언어발달지체유아들이 까다로운 기질을 가졌으며(이수근 외, 1999), 까다로운 기질의 영

아에게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민감하고 거부적으로 나타났고, 순한 기질의 영아에게는 긍정적이고 반응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유희정, 2009).

한편, 본 연구는 오소정 외(2012)의 아동화용언어 체크리스트(CPLC)를 사용하여 만 5세 유아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측정하였다. 유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련된 선행연구(유희정, 2009; 이지연, 2007; 한경이, 2006)들에서는 대상별로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유아 기질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상관 및 미치는 영에 있어서 각각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비언어적 의사소통 측정 도구의 차이, 연구 대상의 연령별 차이, 조사 및 측정 환경의 차이에 따라 분석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일반화 및 비교 집단 확대 등을 통해 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각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유아의 경우 주의통제기질이 높은 유아가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높았다. 주의통제기질은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행동적 반응을 계획, 통제, 조절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고(Rothbart & Bates, 2006),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정서 및 사회 인지적 발달과 밀접하다(이지연, 2007). 그리고 기질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선영, 김희진, 2014; 박영신, 2013; 정경희, 2017)에서 기질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해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일반유아는 주의통제기질이 발달할수록 효율적인 선택적 주의력을 발휘하며, 타인의 눈빛, 제스처, 표정, 몸짓 등에 반응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유아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높은 유아의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이 낮았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유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유아가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비언어적 메시지에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자신의 의사도 비언어적 메시지를 사용하여 나타낼 때 어머니는 자녀에게 주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유아의 의사소통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이다. 반면에 유아가 타인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지 못할 때 어머니는 자녀에게 주의통제기질을 요구해야 한다. 즉 어머니는 자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개입하고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될 것이다.

다섯째,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언어발달지체유아에서는 외향조화적합성만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유아에서는 화용언어능력 전체에 주의통제기질이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본 연구문제 2의 결과를 통하여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 전체와 외향조화적합성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

행연구(이승환 외, 2002; 조명숙, 2005; Adams & Gathercole, 1995)에서 언어발달지체 유아는 일반유아보다 화용언어능력이 제한적이며, 연령이 증가해도 언어의 이해력과 표현력이 정상적인 발달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며, 말수가 적거나 말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이해력이 부족해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혔다. 즉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오소정, 2018)이기 때문에 외향조화적합성이 중요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Adams(1990)는 언어발달은 유아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 수준이 부합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유아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에서도 유아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 수준이 부합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유아의 활동수준적합성이 수용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이희경과 김근영(2015)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외향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 외향조화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화용언어능력 전반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접근 방안이 될 것이다. 언어발달지체유아가 화자와 청자 간의 질문과 대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려고 할 때 유아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동을 낮추려고 요구하기보다는 이들의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여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언어발달지체유아가 화자와 청자 간의 질문과 대답에 소극적이고,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빈도가 낮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의사소통 시도를 요구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외향조화적합성을 높이는 치료적 중재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어머니를 위한 외향조화적합성의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유아의 경우 주의통제기질이 높은 유아가 화용언어능력 전체(총점)도 높았다. 주의통제기질은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행동적 반응을 계획·통제·조절하는 핵심적인 기제이며, 화용언어능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지적·언어적 능력이 함께 발달하는(신선희, 2019), 상위 언어능력이다(Owens, 2014). 그러므로 유아의 화용언어능력 전반에 주의통제기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수근 외(1999)에 의하면 인지적 능력이 높은 유아가 언어학습에 효율적인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 빠른 언어발달을 보인다고 밝혔으며, 그 밖의 여러 선행연구(박영선, 2015; 이은주, 2005; 이희경, 김근영, 2015; 정경희, 2017)에서 주의통제기질과 언어능력의 상관성을 밝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일반유아의 주의통제기질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일반유아의 화용언어능력 전반에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 방

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유아에서는 화용언어능력 전체가 높은 유아의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이 낮았다.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Girolametto & Weitzman, 2002). 그리고 어머니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언어 자극의 양이나 형태 및 언어 전략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장유경, 임현정, 곽금주, 2004; 김정미, 이향수, 2007) 때문에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은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유아의 화용언어능력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유아가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의사소통하고자 할 때,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잘하기를 바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될 것으로 본다. 반대로 일반유아가 산만하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대화를 하거나, 타인의 의도와 다르게 의사소통하면 어머니는 자녀에게 주제에 집중하고 의도를 파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유아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올바르게 상호작용한다면 화용언어능력이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의 차이, 집단별 변인 간 상관,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외향기질, 외향조화적합성, 전반적 화용언어능력이 일반유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편, 화용언어능력과 관련 있는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화용언어능력 하위요인에 주의통제기질이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어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집단 별로 화용언어능력 하위요인과 외향조화적합성 간에 상이한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경우에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일반유아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기질조화적합성 변인에 대한 집단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 변인들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독립적인 기여도를 알기 위해 회귀분석으로 그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언어발달지체유아는 '주의통제기질'이 화용언어능력의 하위요인인 담화 관리능력에서만 영향을 주었고, '외향조화적합성'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제외한 상황·청자·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화용언어능력 전체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는 '주의통제기질'과 '주의통제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화용언어능력과 외향기질이 낮은 언어발달지체 유아에서 어머니의 외향 기질요구가 낮아서 외향기질조화적합성이 높을 때 언어발달지체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이 높다는 것은 특수집단아동의 적응에 부모 양육특성이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김은경, 2003; 박해송, 최은주, 2005; 하은빈, 2012; Adams, 1990; Conture et al., 2013; Gleason, 1977; Newland & Crnic, 2016)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한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언어능력을 지닌 일반유아에서는 기질조화적합성이 낮을 때 즉 부모의 요구가 유아의 기질과 차이가 있을 때 화용언어능력이 높다는 것은 부모의 요구가 오히려 이 집단에서 유아 주도적 의사소통능력을 이끄는 것으로 사료된다. 두 집단에서 화용언어능력의 발달을 위해 부모의 요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는 아동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육특성이 적합하다는 기질조화적합성이론 등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Kochanska, 1997; Thomas & Chess, 1977, 1988).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화용언어능력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령기 이후의 아동들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였다. 화용언어능력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학령기 이후까지 연속적, 단계적으로 발달(김영태, 2014)하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소수의 연구마저도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김은향, 2020; 오소정, 2019; 이은주, 김영태, 오소정, 2019; 오현미, 2020; 이해인, 2018; 전해인, 2016; 홍은지, 2021).

본 연구를 통해 학령기 언어 발달의 토대이자 긴밀한 연관성, 연속성을 지닌 유아기의 화용언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 변인들의 관련성을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 간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학술적인 의의와 교육 현장에서의 임상적 의의를 함께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변인들과 하위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를 토대로 어머니의 적절한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지침도 함께 도출함으로써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유아 기질과 기질조화적합성에 대한 관련성 연구들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언어발달지체유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의 상관성 및 영향력을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고, 집단 간 상이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동안 실증 연구가 부족했던 언어발달지체유아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아 기질과 기질조화적합성 및 각각의 하위 요인들을 활용하여 각 집단의 화용언어능력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중재와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론적 지침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 유아의 기질조화적합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내 선행 연구들이 활용해 왔던 DOTS-R 측정 도구 대신 Rothbart가

개발한 CBQ-VSF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CBQ-VSF는 기존의 유아동 기질 관련 척도들이 지닌 척도 타당성 및 측정 구조의 문제를 개선·보완한 척도로 평가되며, 특히 유아들의 개인적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다(이경옥,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반 유아뿐 아니라 언어발달지체유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CBQ-VSF의 활용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CBQ-VSF 척도를 활용하여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 유아들의 개인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기질조화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도는 활용도가 비교적 적었던 척도의 활용 및 효용성 검증을 실현함으로써 측정 도구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과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임상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 조사 방식에 의거하여 두 개 광역시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언어발달지체유아 125명, 일반 유아 125명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두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향후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많은 비교 집단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가정 환경(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등에 따른 통해 유아들의 기질, 기질조화적합성, 화용언어능력 등이 차이, 상관, 영향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언어발달지체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의 향상을 돕기 위해 세부 집단별 비교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만 5세의 언어발달지체유아와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연구자의 역량과 시간의 한계로 인해 소규모 두 집단 간의 차이만을 탐색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보다 넓은 범위의 표본 조사를 시도함과 동시에 연령별, 지역별, 장애영역별로 다양한 세부 집단의 특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어발달지체유아 외에도 다양한 장애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단일 집단의 유아들, 그중에서도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언어장애유아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 및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장애유아들을 선별하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현실적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영역의 언어장애유아들의 치료적 중재에 도움줄 수 있는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장애유아들의 조기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웅, 이미애(1995). 아동기 기질과 부모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숙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0, 109-125.
- 김기홍(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및 조화적합성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홍, 이주리(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기질 및 조화적합성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보육지원학회지**, 6(1), 47-65.
- 김난경(2001). 유아-어머니의 기질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말경(1996). 아동의 학업성취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모델과 조화적합성 모델 비교.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화, 곽금주, 성현란, 심희옥, 장유경(2003). 영아기 정서 단어 습득에서 기질과 양육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6(4), 39-55.
- 김민희(199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만족도에 따른 유아의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곽금주(2007). 영아기 기질의 발달적 변화와 영아기 사회적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초기 기질 특성과 기질의 변화 패턴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8(6), 186-199.
- 김수지(1996). 아동의 기질과 놀이실 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룡, 장소원(200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
- 김은경(2003). 부모교육이 언어발달지체유아의 의사소통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환경중심 언어중재와 아동중심 언어중재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3(2), 177-204.
- 김은향(2020).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 스마트미디어기기 의존, 집행기능 곤란, 화용언어능력의 구조적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037-1059.
- 김정은, 신유림(2015).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의도적 통제 및 부모-자녀관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219-237.
- 김연주(2018). 유아의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의 자기결정력, 자아존중감, 그리고 어머니-유아 간의 조화적합성에 대한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1999). 몬테소리 유아교육 언어교육. 서울: 학지사.
- 김영태(2014).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2003).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 (Preschool Receptive - 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서울: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 김정민(1992). 청소년기 기질 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2008). 영아의 언어능력과 제반 변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현희(2018). 시청각 담화과제 KOPLAC을 통한 경도 지적장애 아동의 화용언어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수, 최예슬, 이근용(2015). 경도 지적장애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나타난 주제 운용 능력. **지적장애연구**, 17(2), 415-432.
- 김혜린, 한선경, 김영태(2014).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특수교육**, 13(3), 371-385.
- 모미라(2019). 유아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및 유아의 자기결정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근주(2014).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 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애, 김영태(2001).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정상아동의 보통명사 정의하기 능력 비교.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5(2), 1-19.
- 박민아(2017).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화용언어특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아동학회지**, 23(4), 71-88.
- 박영선(2015). 학령전기 말더듬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 특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운(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기질-양육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2001). 말더듬아동과 정상아동의 의사소통 의도 출현을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해송, 최은주(2005). 청소년ADHD 고위험군의 하위유형별 기질, 기질 적합성 및 문제행동의 차이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6(1), 106-116.
- 배경숙, 조희숙(2004).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요구도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논총**, 13(2), 137-152.
- 배울미, 정진화(2019). 교사보고식 초간편형 유아 기질 척도(CBQ-VSF)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3(1), 157-182.
- 백소정(2017). 화용언어능력 직접 및 간접 평가를 통한 학령기 언어장애아동과 고기능 자폐아동의 화용언어 특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주(1996). 어머니와 아동의 조화적합성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유경, 안성우(201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특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479-496.
- 서경희(2010). CCC2를 이용한 아동 의사소통 능력 발달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5, 251-276.
- 서주현(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지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승하(2019). 사회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을 활용한 언어치료가 학령기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장애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승하, 김영태, 이수정, 김정아(2017). 시청각적 담화 과제를 활용한 4-10세 아동의 화용언어 발달 및 어휘능력과의 상관도 연구. **언어치료연구**, 27(2), 218-232.
- 신선희(2019). 시설거주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상황예측추론 특성 비교. **특수교육논집**, 23(2), 73-81.
- 양수정(2007). 영아의 기질에 따른 또래간 상호작용의 차이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선미, 이은주(2020). 청각장애인의 화용언어능력 관련 연구동향: 2000-2020년 국내 · 외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총**, 36(2), 81-104.
- 오소정, 이은주, 김영태(201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언어치료연구**, 21(2), 111-135.
- 오소정(2018). 아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PCL)의 타당도 연구. **언어치료연구**, 27(2), 125-134.
- 오소정(2019). 대규모 설문조사에 나타난 9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성별과 사회경제적지위(SES)의 영향. **한국언어청가임상학회**, 24(2), 317-337.
- 오현미(2020).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아동의 학교 또래적응에 미치는 영향-학교환경의 매개효과. **영유아교육지원연구**, 5(1), 87-108.
- 원영미, 박혜원, 이귀옥(2004).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연변 조선족과 한국 유아의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311-334.
- 위영희(1994). 영·유아 기질측정 척도(IBQ)의 타당화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5(1), 109-125.
- 유희정(2009). 만 2세아의 성과 기질에 따른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반응.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2), 125-144.
- 윤진, 김정민(1991). 인간 발달과 기질과의 관계-조화의 적합성모델의 이론적 기초와 그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43-60.

- 이경옥(2004). 유아 기질 척도(CBQ)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01-120.
- 이근영(1999). 또래간 상호작용 유형과 인기도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희, 임동선(2014).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아동과 일반아동의 화용능력 및 집행기능 수행능력 비교 연구. **특수교육**, 13(1), 89-105.
- 이상연, 안성우, 정경희(2014). 장애유아 기질과 어머니 언어통제유형관의 관계. **언어치료연구**, 23(3), 129-145.
- 이소연, 최은실(2020). 내재화, 외현화, 내-외 혼재 문제를 가진 유아의 기질 특성 비교 연구. **발달지원연구**, 9(1), 101-115.
- 이소은(2011). 기질, 성, 심리적 행동적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5(3), 409-430.
- 이수근, 정유숙, 홍성도, 김이영(1999). 한국 의사소통 장애 아동의 기질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0(1), 43-49.
- 이순복, 김문숙(2011).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및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2), 171-186.
- 이승환(2002). 의사소통장애개론. 서울: 하나의학사.
- 이시자(2013). 유아의 성별, 기질, 유아-어머니 간 기질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3(5), 257-278.
- 이은주(2005). 취학전 말더듬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오소정(2019). 화용언어능력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련성-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4(4), 906-924.
- 이은주, 김영태, 오소정(2019). 6-9세 아동의 연령, 지능, 어휘수준, 성별, 그리고 언어문화 차이에 따른 화용언어능력 비교. **이중언어학**, 76(1), 111-135.
- 이주연, 이사라(2018).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기질, 어머니 요구도 및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의 영향. **생애학회지**, 8(1), 37-56.
- 이지연, 장유경(2005). 영아초기 어휘발달의 특성: 8-18개월 영아의 단기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105-123.
- 이지영(1974). 어린이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외적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2014). 부모-자녀 기질조화적합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김근영(2015). 기질과 모와의 기질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17(1), 365-379.

- 이현정(2008). 담화유형에 따른 학령기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구문사용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김영태, 윤혜련(2008). 담화유형에 따른 학령기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구문사용 특성: 대화와 설명 담화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3(1), 103-121.
- 이혜인(2018).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언어 정상발달 유아를 대상으로. 중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 배운진(2015). 한국판 Rothbart 유아용 기질 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의 타당화. **한국생활과학회지**, 24(4), 477-497.
- 장유경(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18개월-36개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91-105.
- 장유경, 이근영(2006). 영아의 기질과 초기 어휘습득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263-276.
- 장유경, 임현정, 광금주(2004). 언어적 입력의 품사가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27-241.
- 장유진, 이강이(2011). 유아의 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지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59-76.
- 전은하, 박주희(201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남아와 여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4), 147-166.
- 전혜인(2016). 어휘능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령기 저학년 아동의 화용언어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2017). 단순언어장애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특성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연(2002).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어머니의 지각, 어머니-유아간의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라, 이윤경(2010). 언어발달지체 유아와 일반유아의 의사소통 행동 비교. **유아특수교육연구**, 10(1), 31-46.
- 조명숙(2005). 마인드 맵 활동이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1995). 아동의 기질과 맥락적응의 관계 I: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기질의 적합성과의 관계. **아동연구**, 4, 12-26.
- 천희영(1998). 종단적 접근에 의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요구도, 및 어머니 기질의 관계. **아동연구**, 7, 13-28.
- 최영희(1993).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로운 합치모델” 검증연구(1): 조화로운 합치 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17-226.

- 하은빈(2012). 말 늦은 아동(late-talker)과 일반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 특성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승희(2015). CPLC 체크리스트를 통한 어휘 발달 지연 위험군(at risk) 취학전 아동의 화용 능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이(2006). 유아-교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활동이 유아의 애착형성과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미경, 이소은(2010).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과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53-373.
- 허순영(2004).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및 기질 부조화에 따른 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훈, 김영태(2001).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 습득에 대한 종단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6(1), 17-39.
- 황미영(2008). 어머니의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조화적합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지(202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자녀의 화용언어능력. 가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정, 문혁준, 안선희, 안효진, 이경옥, 정지나(2019). **아동연구방법론**. 서울: 창지사.
- Adams, C. (2002). Practitioner review: The assessment of language pragma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8), 973-987.
- Adams, A. M., & Gathercole, S. E. (1995).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nd speech production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8(2), 403-414.
- Adams, M. (1990). The demands and capacities model I: Theoretical elaboration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5(3), 135-141.
- Adamson, L. (1995). *Communication development in infancy*. Madison, WI: Brown & Benchmark.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Baker, J. K., Fenning, R. M., Crnic, K. A., Baker, B. L., & Blacher, J. (2007). Prediction of social skills in 6-year-old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Contributions of early regulation and maternal scaffolding.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12(5), 375-391.
- Baroni, M. R., & Axia, G. (1989). Children's meta-pragmatic abilities and the identification of polite and impolite requests. *First Language*, 9(3), 285-297.
- Bates, E. (1976). *Language and context: The acquisition of pragmatics*. New York,

NY: Academic Press.

- Beck, A., Daley, D., Hastings, R. P. & Stevenson, J. (2004). Mothers' expressed emotion towards children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8(7), 628–638.
- Bernicot, J., Laval, V., & Chaminaud, S. (2007). Nonliteral language forms in children: In what order are they acquired in pragmatics and metapragmatics. *Journal of Pragmatics*, 39(12), 2115–2132.
-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erot, C., Friedman, D., Snidman, N., Kagan, J., & Faraone, S. V. (2001). Further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0), 1673–1679.
- Birdwhistell, R. L. (1970). *Kinesics and context. Essay on body mo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ishop, D. V. M. (1998).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 (CCC): A method for assessing qualitative aspects of communicative impairment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6), 879 - 891.
- Bishop, D. V. M. (2003). *The 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 CCC-2*. London: Harcourt Assessment.
- Bishop, M., Chan J., Adams C., Hartley J., & Weir F. (2000). Conversational responsiveness i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Evidence of disproportionate pragmatic difficulties in a subset of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2), 177–199.
- Bloom, L. (1993). *The transition from infancy to language: Acquiring the power of express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 L., Margulis, C., Tinker, E., & Fujita, N. (1996). Early conversations and word learning: Contributions from child and adult. *Child Development*, 67(6), 3154–3175.
- Buss, A. H. & Plomin, R. (1986). The EAS approach to temperament. In J. Dunn (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pp. 67–79). Hillsdale, Psychology Press.
- Cameron, C. A. (2009). Associations between shyness, reluctance to engage, and academic performance.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8(3), 299–305.
- Cardoso-Martin, C., & Mervis, C. B. (1985). Maternal speech to prelinguistic children with Down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9(5), 451-458.

- Caulfield, M. (1989). Communication difficulty: A model of the relation of language delay and behavior problems.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 212.
- Chess, S., & Thomas, A. (1998). *Goodness of fit: Clinical applications from infancy through adult life*. Philadelphia: Brunner/Mazel.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309-1321.
- Cole, P. M., Luby, J., & Sullivan, M. W. (2008). Emo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hildhood depression: Bridging the gap.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2*(3), 141-148.
- Collins, A., Lockton, E., & Adams, C. (2014). Metapragmatic explicitation ability in children with typical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ovel clinical assess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52*(4), 31-43.
- Conture, E. G., Kelly, E. M., & Walden, T. A. (2013). Temperament, speech and language: An overview.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6*(2), 125-142.
- Davies, C., Andrés-Roqueta, C., & Norbury, C. F. (2016). Referring expressions and structural language abilities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 pragmatic tolerance accou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44*, 98-113.
- Denham, S. A. (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1), 194-201.
- Denham, S., & Kochanoff, A. T. (2002).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311-343.
- Dixon, W. E. Jr., Wallace, E., & Smith, P. H. (2000). Links between temperament and language acqui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6*(3), 417-440.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pp. 119-150).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Ellis, R. J., Caligiuri, M., Galasko, D., & Thal, L. J. (1996). Extrapyrmidal motor signs in clinically diagnosed alzheimer disease. *Alzheimer Disease and Associated Disorders, 10*(2), 103-114.
- Feagans, L. V., Merriwether, A. M., & Haldane, D. (1991). Goodness of fit in the

- home its relationship to school behavior and achievement in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4(7), 413-420.
- Girolametto, L., & Weitzman, E. (2002). Responsiveness of child care providers in interactions with toddlers and preschooler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3(4), 268-281.
- Goldsmith, H. H., & Campos, J. J. (1982). Toward a theory of infant temperament. In R. N. Emde & R. J. Harmon (Eds.),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and affiliative systems* (pp. 161-193). New York: Plenum Press.
- Halle, J., Brady, N., & Drasgow, E. (2004). Enhancing socially adaptive communicative repairs of beginning communicators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3(1), 43-54.
- Hammer, C. S., Tomblin, J. B., Xuyang, Z., & Weiss, A. L. (2001).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36(2), 185-205.
- Hanline, M. F., Nenes, D., & Worthy, M. B. (2007).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in the early childhood years. *Young Children*, 62(4), 78-82.
- Hewitt, L. E., Hammer, C. S., Yont, K. M., & Tomblin, J. B. (2005). Language sampling for kindergarten children with and without SLI: Mean length of utterance, IPSYN, and NDW.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38(3), 197-213.
- Hayward, C., Killen, J. D., Kraemer, H. C., & Taylor, C. B. (1998). Linking self-reported behavioral inhibition to adolescent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12), 1308-1316.
- Kagan, J., & Fox, N. A. (2006). Biology, culture, and temperamental biases.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167 - 225). New York, John Wiley & Sons.
- Klee, T., Stokes, S. F., Wong, A. M., Fletcher, P., & Gavin, W. J. (2004). Utterance length and lexical diversity in cantonese-speaking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6), 1396-1410.
- Kochanska, G. (1997). Multiple pathways to conscience for children with different temperament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28-240.

- Kuder, S. J. (2010). *Teaching students With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abilities (3th ed.)*. CA: AAllyn/Bacon.
-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 Lengua, L. J., Wolchik, S. A., Sandler, I. N., & West, S. G. (2000). The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ing and temperament in predicting adjustment problems of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2), 232-244.
- Leonard, L. B. (1998).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irment*. Cambridge, MA: The MIT Press.
- Lerner, J. V. (1984). The import of temperament for psychosocial functioning: Tests of a goodness of fit model. *Merrill-Palmer Quarterly, 30*(2), 177-188.
- Lerner, J. V., Lerner, R. M., & Zabski, S. (1985). Temperament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tual and rated academic performance: A test of a "goodness-of-fit" mode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1), 125-136.
- Liiva, C. A., & Cleave, P. L. (2005). Roles of initiation and responsiveness in access and participation for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8*(4), 868-883.
- Marton, K., & Schwartz, R. G. (2003). Working memory capacity and languageprocesses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6*(5), 1138-1153.
- Markus, J., Mundy, P., Morales, M., Delgado, C. E. F., & Yale, M.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skills as predictors of child-caregiver joint attention and language. *Social Development, 9*(3), 302-315.
- Mehrabian, A. (2007). *Nonverbal communication*. New Brunswick, NJ: Aldine Transaction.
- Mogtgomery, J. W. (2003). Working memory and comprehension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What we know so fa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36*(3), 221-231.
- Moreno, A. J., & Robinson, J. L. (2005). Emotional vitality in infancy as a predictor of cognitive and language abilities in toddler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4), 383-402.
- Mundy, C. E., & Willoughby, K. E., (1996). Toddlers' language development: Sex

- differences within social risk. *Developmental Psychology*, 31(5), 851–865.
- Neal, J. A., & Edelmann, R. J. (2003).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Toward a developmental profi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6), 761–786.
- Newland, R. P., & Crnic, K. A. (2016). Developmental risk and goodness of fit i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Links to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ur problem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6(2), 1522–7227.
- Owens, R. E. (2014).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6th ed.)*. Boston, MA: Pearson.
- Paterson, G., & Sanson, A. (1999). The association of behavioural adjustment to temperament, parenting and family characteristics among five-year-old children. *Social Development*, 8(3), 293–309.
- Paul, R., & Shiffer, M. E. (1991). Communicative initiations in normal and late-talking toddlers. *Applied Psycholinguistics*, 12(4), 419–431.
- Paul, R., & Kellogg, L. (1997). Temperament in late talk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7), 803–811.
- Paul, R. (2007).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 Louis: Mosby.
- Paul, R., Hernandez, R., Taylor, L., & Johnson, K. (1996). Narrative development in late talkers: Early school ag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9(6), 1295–1303.
- Paul, R., & James, D. (1990). Language delay and parental percep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4), 669–670.
- Philofsky, A., Fidler, D. J., & Hepburn, S. (2007). Pragmatic language profiles of school-age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nd Williams syndrome. *Am J Speech Lang Pathol*, 16(4), 368–380.
- Prior, M., Bavin, E., Cini, E., Eadie, P., & Reilly, S. (2011). Relationships between language impairment, temperament, behavioural adjustment and maternal factors in a community sample of pre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46(4), 489–494.
- Prior, M., Smart, D., Sanson, A., & Oberklaid, F. (1993). Sex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justment from infancy to 8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2), 291–304.
- Prutting, C. A., & Kirchner, D. M. (1987). A clinical appraisal of the pragmatic aspects of languag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2(2), 105–119.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3), 386-401.
- Ratner, N. B., & Guitar, B. (2006). Treatment of very early stuttering and parent-administered therapy: The state of the art. In N. Bernstein & J. Tetnowski (Eds.), *Current issues in stuttering research and practice* (pp. 99-12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escorla, L., Bascome, A., Lampard, J., & Feeny, N. (2001). Conversational patterns in late talkers at age 3. *Applied Psycholinguistics, 22*(2), 235-251.
- Rieser-Danner, L. A.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fearfulness and cognitive performance: A testing, performance, or competence effect.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9*(1), 41.
- Ripich, D. N., & Griffith, P. L. (1988). Narrative abilitie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children: Story structure, cohesion, and proposition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1*(3), 165-173.
- Roth, F., & Speckman, N. (1984). Assessing the pragmatic abilities of children: Part 2. guidelines, considerations, and specific evaluation procedur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9*(1), 12-17.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2), 569 - 578.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105-176). John Wiley & Sons.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m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99-166).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37-8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alley, B., & Dixon, W. (2007). Temperament and joint attentional predictors of language development. *Merrill Palmer Quarterly, 53*(1), 131-154.
- Salley, B., Panneton, R. K., & Colombo, J. (2013). Separable attentional predictors of language outcome. *Infancy, 18*, 462-489.

- Schwartz, C. E.,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8), 1008–1015.
- Scott, C. (1988). Spoken and written syntax. In M. A. Nippold (Ed.), *Later language development: Ages 9 through 19*. (pp. 49 - 95).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 Seifer, R. (2000).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In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257–276). Boston, MA: Springer.
- Shaffer, D. R. (1998).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5th ed.). CA: Brooks/Cole.
- Slomkowski, C., Nelson, K., Dunn, J., & Plomin, R. (1992). Temperament and language: Relations from toddlerhood to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90–1095.
- Smith Watts, A. K., Patel, D., Corley, R. P., Friedman, N. P., Hewitt, J. K., Robinson, J. L., & Rhee, S. H. (2014). Testing alternative hypotheses regarding the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toddlerhood. *Child Development*, 85(4), 1569–1585.
- Snow, C. E., Pan, B. A., Imbens-Bailey, A., & Herman, J. (1996). Learning how say what one means: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s speech act use. *Social Development*, 5(1), 56–84.
- Spector, C. C. (1996). Children's comprehension of idioms in the context of humor.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7(4), 307–313.
- Starkweather, C. W. (1990). The demands and capacities model II: Clinical elaboration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5(3), 143–157.
- Stephens, G., & Matthews, D. (2014). The communicative infant from 0 - 18 months. *Pragmatic Development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 10, 13–36.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homas, A., & Chess, S. (1986). The New York longitudinal study: From infancy to early adult life. In R. Plomin & J. Dunn (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pp. 39–5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ough, J. (1977). *The development of meaning*. New York: Halsted Press.
- Tsuji, H., & Doherty, M. J. (2014). Early development of metalinguistic awareness in Japanese: Evidence from pragmatic and phonological aspects of language.

First Language, 34(3), 273-290.

Tye-Murray, N. (2003). Conversational fluency of children who use cochlear implants. *Ear and Hearing*, 24(1), 82-89.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indle, M., &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s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13-229.

Zentner, M., & Shiner, R. L. (2012). Fifty years of progress in temperament research: A synthesis of major themes, findings, and challenges and a look forward. In M. Zentner & R. L. Shiner (Eds.), *Handbook of temperament* (pp. 673-70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Abstract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on the Pragmatic Language Skills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Seo, SuMi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s of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on language delayed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kill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1.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emperament, goodness of fit, and pragmatic language skills betwee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 1-1. What is the difference in temperament betwee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 1-2. What is the difference in the goodness of fit betwee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 1-3. What is the difference in pragmatic language skills betwee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2. What are the correlations among temperament, goodness of fit, and pragmatic language skills betwee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 2-1. What are the correlations of language delayed children's temperament, goodness of fit, and pragmatic language skills?
 - 2-2. What are the correlations of ordinary children's temperament, goodness of fit, and pragmatic language skills?
3. What are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on pragmatic

language skills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 3-1. What is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on discourse management pragmatic language skills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 3-2. What are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on control and application pragmatic language skills according to the situation, listener, and context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 3-3. What are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on communication intention pragmatic language skills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 3-4. What are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on nonverbal communication pragmatic language skills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 3-5. What are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on total pragmatic language skills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Research subjects were 125 five-year-old language delayed children and 125 ordinary children. The children's temperament was measured with Rothbart's CBQ-VSF (Putnam & Rothbart, 1981). Children's goodness of fit was measu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mperament rating and the mother's demand rating using CBQ-VSF.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kills were measured with the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by Oh et al (201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5. The impacts of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on the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kills were verifi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dependent samples *t*-tests revealed that extrovert temperament representing the level of activities and extrovert goodness of fit were significantly lower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than in ordinary children. Also, discourse management—, control and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listener, and context, communication intentio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otal—pragmatic language skill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than in

ordinary children.

Secondly, correlational analyses among the variable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attention control temperament, discours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ntention-skills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In ordinary children,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ttention control temperament and discourse management-, control and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listener, and context-, communication intentio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otal pragmatic language-skills.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extrovert goodness of fit and communication intention skills, and between attention control goodness of fit and discourse management skills.

Thirdl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language delayed children there wer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attention control temperament only on discourse management skills, an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f extrovert goodness of fit on control and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listener, and context-, communication intentio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otal pragmatic language-skills. In ordinary children,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f attention control temperament on discourse management-, control and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listener, and context-, communication intentio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otal pragmatic language-skills. Also,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f attention control goodness of fit on all pragmatic language skills.

This study compared temperament, goodness of fit, pragmatic language skills and the factors affecting pragmatic language skills in language delayed and ordinary childre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mperament, goodness of fit, and pragmatic language skills between the groups. In both language delayed and ordinary childre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ttention control temperament and pragmatic language skills. In language delayed children with lower language abilities,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f extrovert goodness of fit on pragmatic language skills. In contrast, in ordinary children, there were negative effects of attention control and attention control goodness of fit on pragmatic language skills. This implies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apply different parenting practices in different groups or children for the development of pragmatic language skills and is congruent with the goodness of fit theory which empathize the importance of the context..

Subsequent studies need to analyze parenting practices and interventions according to individual differences and different subgroups among language delayed children. Also, it would be necessary to expand the generalization of the study which found the differential effect of goodness of fit depending on the language abilities by analyzing various language skill groups.

Keywords: Temperament, Goodness of fit, Pragmatic language skills, Language delayed children.

부록 [부모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조화적합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 연구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으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학술적 연구를 위한 통계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지 문항은 자녀와 어머니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문항에서 평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칸에 √ 또는 ○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짐없이 모든 문항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연구자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사과정 서수민

다음은 연구의 기초자료를 위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으며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 성별: ① 남 ② 여

2. 자녀 생년월일: ()년 ()월 ()일

3. 주 양육자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부모 ④ 기타()

4. 아버지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5. 어머니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6. 아버지 최종학력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이상

7. 어머니 최종학력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이상

8. 부모 취업 여부

① 아버지 취업 ② 어머니 취업 ③ 부모 모두 취업 ④ 기타()

9. 가구 소득

- ① 180만원 미만 ② 180만원~350만원 미만 ③ 350~480만원 미만
④ 480~630만원 미만 ⑤ 630~1200만원 미만 ⑥ 1200만원 이상

10. 자녀의 보육 또는 교육 기관

- ① 일반어린이집 ② 일반유치원 ③ 통합어린이집 ④ 통합유치원
⑤ 장애전문어린이집

1. 다음은 자녀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으신 다음, 자녀가 생활 중에 보이는 행동, 기질적 특성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응답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항상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느라 많이 조급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했을 때 크게 실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할 때,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높은 미끄럼에서 내려오거나 모험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조금 베인 상처나 멍에 많이 놀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일상적 활동의 변경이나 새로운 활동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새로운 상황으로 자주 뛰어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가족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슬퍼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노래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강도"라는 소리를 듣거나 위협을 나타내는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다른 사람이 새 옷을 입었을 때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활동적인 게임보다 조용한 활동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화가 나면, 10분 이상 지속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쌓기놀이나 맞추기놀이를 할 때 매우 집중하며, 오랫동안 지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그네를 밀어줄 때 높고 빠르게 밀어주면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어떤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우울해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같다.							
18	지시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새로운 상황에 다가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감기에 걸려 아플 때도 거의 불평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자장가처럼 음률이 있는 소리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끔 수줍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화가 났을 때 달래기가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거실의 새로운 물건을 빨리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조용한 시간에도 에너지가 넘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때때로 그림책에 열중하며 오랫동안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거칠고 난폭한 게임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조금 베인 상처나 멍에 많이 놀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위험하다고 들은 장소에서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천천히 서두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가지고 놀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몸 흔들기와 같은 부드러운 리듬이 있는 활동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가끔씩 새로 사귄 사람을 수줍게 외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방문 후 떠날 준비를 할 때 슬퍼하거나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친구나 부모의 외모가 바뀌면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다음은 생활 중에 어머니께서 자녀에게 실제로 요구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어머니께서 자녀에게 그렇게 행동하기를 얼마나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가까운 응답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아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때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됐을 때 실망하거나 짜증을 내어도 괜찮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할 때 오랫동안 집중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아이가 높은 미끄럼에서 내려오거나 모험적인 활동을 좋아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아이가 조금 배인 상처나 멍에 놀라지 말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아이에게 여행이나 야외활동 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아이가 새로운 상황을 자주 접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아이에게 가족계획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슬퍼하거나 짜증을 내어도 괜찮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아이가 노래 부르기를 즐기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아이가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아이에게 "강도"라는 소리를 듣거나 위협을 나타내는 소리를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아이가 주변 사람이 새 옷을 입는 등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관심 갖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아이가 활동적인 게임보다 조용한 활동을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아이의 화가 10분 이상 지속되어 울거나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아이가 쌓기나 맞추기 놀이를 할 때 오랫동안 집중해서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아이가 높고 빠르게 그네를 타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아이가 어떤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나 짜증을 내어도 괜찮다고 한다.						
18	나는 아이가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아이가 접하는 새로운 상황에 천천히 적응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아이에게 감기에 걸려 아플 때도 불평하지 말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아이가 동요처럼 음률이 있는 소리를 즐기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아이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과 만남에서도 천천히 적응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달래기가 매우 어려워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아이가 거실의 새로운 물건이나 위치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관심 갖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나는 아이가 조용한 시간에도 에너지가 넘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나는 아이에게 어둠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아이가 그림책을 볼 때 오랫동안 집중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나는 아이에게 거칠고 소란스러운 게임을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나는 아이에게 조금 베인 상처나 멍에 신경 쓰거나 놀라지 말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나는 아이가 위험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나는 아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아이에게 가지고 놀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화를 내도 괜찮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나는 아이에게 몸 흔들기와 같은 부드러운 리듬이 있는 활동을 즐기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나는 아이에게 새로 사귄 사람들을 피하지 말고 다가가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나는 아이에게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방문 후 떠날 준비를 할 때 화를 내도 괜찮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나는 아이에게 친구나 부모의 외모가 바뀌면 이것에 대해 알아차리고 이야기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음은 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녀의 의사소통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에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문항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 자녀의 행동을 잘 떠올려 보시고 가장 가까운 응답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횟수가 다른 또래들과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대화 주제를 갑자기 엉뚱한 내용으로 바꾸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주제를 유지하면서 5차례 이상 대화상대자와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접속사(예: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등)를 사용하여 앞의 말과 연결된 문장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대화하다가 주제를 바꿀 때 주제가 바뀐다는 것을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오늘 축구 할 때 ~”/ “엄마, 선생님도 그러는데요...”)	①	②	③	④	⑤
7 이전 발화와 부분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대답을 들었으면 불필요하게 다시 질문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대화하다가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 달라거나 더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듣는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낱말의 뜻이나 설명, 상황 등을 적절히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대화하는 상대방에 따라 존대말/반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예: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	①	②	③	④	⑤
13	사람에 따라 말소리(크기나 높낮이)나 내용을 다양하게 달리하여 사용한다. (예: 어린 아이에게 이야기 할 때는 좀 더 천천히, 쉽게 이야기 함)	①	②	③	④	⑤
14	앞뒤 상황이나 맥락을 듣고 농담이나 말장난의 핵심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반응을 보인다. (예: 농담을 듣고 적절하게 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지시어를(이/그/저, 이거/그거/저거, 여기/저기/거기,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지시어의 너무 빈번한 사용 없이)	①	②	③	④	⑤
16	상호관계가 있는 말들(가져오다/가져가다, 빌리다/빌려주다, 안녕히계세요 / 안녕히가세요)등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용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같은 낱말이 평상시와 서로 다른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될 때도 이해할 수 있다. (비유나 동음이의어 등) (예: 나무에서 떨어지다 vs 소파가 (납아서) 떨어지다)	①	②	③	④	⑤
19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회의나 발표하는 상황에서는 예의를 갖춘 말투나 어휘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역할놀이를 할 때 말은 역할에 따라 말투나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듣는 사람이 나의 경험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말하는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 (예: 같이 축구경기를 한 친구와 그 자리에 없었던 친구에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자기가 알고 있거나 좋아하는 낱말을 부적절한 상황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대화 중에 불필요하게 세세한 정보를 언급하지 않는다. (예: '설악산 언제 갔었어? 하면 '2007년 8월 11일 날 갔다가 15일에 왔어요')	①	②	③	④	⑤
24	말하려는 사물을 적절히 꾸미는 말을 사용해 비슷한 사물과 변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예: (여러 블록 중에서) 파랗고 동그랗고 기다란 블록: 이것은 동물인데 검정색 줄무늬가 있고 싸움도 잘하는 거)	①	②	③	④	⑤
25	행동이나 사물요구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예: 닌텐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부도 열심히 할 텐데)	①	②	③	④	⑤
26	간접적으로 행동이나 사물을 요구하는 내용을 이해하여 반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적절하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양한 의문사(무엇, 왜, 언제, 어디? 등) 질문(정보요구)에 적절히 대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거부표현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말로 친구들을 놀리거나 유머를 구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놀이 상황에서 상황이나 장면을 설정할 때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다. (예: 이게 큰 빌딩이고 이게 자동차라고 하고 여기 불이 났다고 하자.)	①	②	③	④	⑤
32	떼쓰거나 조르지 않고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화해하거나 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적절하게 언어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의견이 다를 때나 다툼이 있을 때 타협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35	적절한 때에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예: 방학 계획, 친구 집에 가서 어떻게 놀자 등)	①	②	③	④	⑤
37	상투적이지 않은 말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예: (좋아/나빠 등의 기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개는 장난이 심하긴 하지만 쾨쾨아, 조금 चु긴 했지만 재미있었어)	①	②	③	④	⑤
38	다른 사람의 요구나 생각, 감정을 알고 있음을 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하는 일에 대해 시범을 보이거나 가르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대화를 할 때 적절히 상대방을 쳐다본다.	①	②	③	④	⑤
41	대화할 때 적절하게 미소를 짓거나 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42	다른 사람 표정을 보고 화나거나 언짢음 등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주위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적절한 표정을 짓는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분명한 얼굴표정을 짓는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과 유사한 표정을 짓는다. (예: 무섭거나 놀리거나 슬플 때 적절한 표정)	①	②	③	④	⑤
44	다른 사람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주의 끌기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필요할 때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예: 대화 시 고개를 끄덕이거나 칭찬할 때 '최고'라는 의미로 엄지손가락 올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46	말할 때 상대방과 적절히 말하기 좋은 거리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빠뜨린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